

‘현장’서 답 찾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어려울 때 미래 준비 혁신으로 국민에 보답”

종합기술원 찾아…올들어 5번째
EUV D램 등 미래기술 전략 점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미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은 25일 경기 수원 삼성종합기술원을 찾아 “국민의 성원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혁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계에 부딪혔다 생각될 때 다시 한번 힘을 내 벽을 넘자”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삼성의 신기술 연구개발 현황을 보고 받고 차세대 미래 기술 전략을 점검했다. 이 부회장이 현장을 찾은 것은 올들어 다섯 번째다.

▶관련기사 9면

이 부회장은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 부회장, 황성우 삼성종합기술원장 사장, 강호규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장, 박진오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소장 등과 함께 △차세대 AI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양자 컴퓨팅 기술 △미래 보안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 등의 혁신 소재 등 선행 기술에 대해 논의했다. 이 밖에 사회적 난제인 미세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설립한 미세먼지 연구소의 추진 전략 등도 살펴보았다.

삼성종합기술원은 1987년 미래 준비를 위한 기초 연구와 핵심

원천기술 선행 개발을 위해 개관했으며, 현재 17개 연구실(Lab)에서 1200여명의 연구원이 차세대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날 EUV 공정을 적용해 생산한 1세대(1x) 10나노급 DDR4 D램 모듈 100만 개 이상을 공급했다고 발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인공지능, 5G(5세대 이동통신), 자율주행 분야의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EUV 기술’ 연구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해 4월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 당시 EUV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았으며, 올해 1월과 2월에도 화성 반도체연구소와 세계 첫 EUV 전용 생산기지인 V1라인을 방문해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

송영록 기자 syr@



머나먼 소상공인 대출

25일 중기부 산하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직접 대출 접수가 시작됐다. 대구 칠성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북부센터 앞이 이른 아침부터 긴급 대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관련기사 10면

연합뉴스

〈서울시장〉 박원순 “소상공인 대출금 10일내 통장 입금”

서울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공급 5조원으로 확대
내달 초 은행서 전담창구 운영…보증업무 대폭 간소화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은 25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경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지원금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내 손 안의 떡’이 되도록, 자금 신청 뒤 10일 안에 통장에 입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열흘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중소 여행사, 영세 학원, 골목 식당 등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서울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신용공급 규모를 3조8050억 원에서 1조2850억 원 증액한 5조900억 원까지 확대할 계



획이다.

서울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담에서 대출에 이르는 전 과정이 10영업일 내에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4월 초부터 564개 지점에서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가 운영되며, 지점별로 전담 직원도 배치된다.

더불어 통상 2개월 걸리던 보증업무 처리기간도 확 줄인다. 다만 현재까지 적체된 상담대기 및 심사적체 건수가 3만여 건

에 이르는 만큼 4월 중순까지 우선 해소하고, 그 후부터 10영업일 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상담과 서류제출을 위해 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을 3~4회 방문하는 것을 1~2회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날 박 시장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강화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서울에서 늘어난 확진자 13명 중 9명은 해외 입국자이고 3명은 입국자의 가족”이라며 “이제 방역의 중심은 해외 입국자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을 포함한 전체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필요하다”며 “다행히 정부도 우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서울시는 전체 입국자 중 서울 거주자 명단을 받는 대로 전체 자가격리에 들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경진 기자 skj78@

신규 확진 100명 중 51명이 ‘입국자’

미국발 입국 전원 2주간 자가격리
文대통령 “진단시약 수출 적극 지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해외 입국자로 확인됐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 방역 강화 방안으로 미국발 입국자도 2주간 자가격리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100명 늘어난 913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100명 중 51명은 해외 입국자로 유럽이 29명, 미주가 18명(미국 13명), 중국 외 아시아가 4명이다. 내·외국인으로 구분하면 51명 중 44명이 내국인, 7명은 외국인이다. 발견 지역으로는 34명이 공항 등 검역과정에서 확인됐고,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인원은 17명이다.

유럽에 이어 미국 입국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방역당국은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는 전원 2주간 자가격리하기로 했다.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시설에서 대기하며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양성과 음성 판정에 따라 치료를 받거나 자가격리를 한다. 입국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미국의 경우 유럽보다 인구 대비 확진자 수나 입국자 대비 확진자 수가 다소 낮은 편이지

만, 다른 국가에 비해 입국자 중 확진자 수가 많다”며 “증가 속도도 빠른 편인 데다 입국자 수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확진자가 늘어나면 방대본은 유럽발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전수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한 의료장비는 진단시약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진단시약 개발·생산 업체인 ‘씨젠’을 찾아 “최근 세계 각국의 수출 요청은 우리나라 진단법의 정확성과 기술력이 신뢰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진단시약)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일환 기자 whan@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코로나19’ 관련 2·3·4·6·9·12·13·16면



‘박사방의 그놈’ 얼굴 공개
주주빈 ‘악마의 삶’ 시인 ▶16면

고용유지지원금 5000억으로 늘려
4월부터 세달간…30만명 혜택 예상
금융사 외환건전성 부담금 한시 면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기업의 근로자 고용유지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처방전을 내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인력 감축과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에 따른 외환자금 이탈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내달부터 6월까지 모든 업종

의 사업장에 대해 최대 90%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기존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75%로 상향했고, 최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관광·공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확대했다.

정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영세 사업자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업·휴직급여의 90%를 지원받는다. 대기업 등 나머지 기업에는 최대 75%

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지원받을 근로자가 최대 3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가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최대 90%까지 적용키로 한 것은 현재 교육·도소매·제조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할 정도로 코로나19에 따른 업계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9일부터 이달 24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부에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계획 신고를 한 사업장은 1만9411곳이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휴업증이 커진 2009년 신고 사업장 1만3000곳(연간 최고치)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4면에 계속 세종=서병관 기자 sbg1219@

“고용절벽 막아라” 90% 휴업수당 소업종 확대



· 사회적 거리두기 · 함께 나누기
· 서로 배려하기 · 바이러스 바로 알기

임대료 인하

농어촌공, 소유 부동산 30% 인하
감면기간 종료 후에도 1년간 동결

마사회, 경기 없는 날 전액 감면
편의점 등 시설 149곳 4.2억 혜택

급여 반납

장·차관 4개월간 임금 30% ↓
의료진·사회 취약계층 대상 지원

코로나19로 한국 경제가 신음을 내는 가운데 특히 소상공인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매장을 찾는 손님은 없고 고정 비용인 임대료는 매달 소상공인의 목을 옥죄는 문제인 대통령 역시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떨어진 관광업체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점포 임대료”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국유재산인 정부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연말까지 70% 가까이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며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섰다.

이제 관건은 민간으로의 확산이다. 340개 공공기관 대부분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 범국가적 캠페인으로 번질 수 있도록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한 공공기관의 임대료 감면 확산 =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료를 30% 인하한다. 기간은 9월까지다. 농어촌공사는 임대료 감면 기간 종료 후에도 1년간 임대료를 동결할 계획이다.

마사회는 경마가 열리지 않는 기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편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입주기업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임대료·시설 이용료 전액을 감면한다. 사진제공 환경부

의점과 전문지판매소, 고객식당, 기타시설 등 149곳이 총 4억2100만 원의 임대료를 면제받는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4개사를 대상으로 6개월간 임대료의 25%를 내렸다. 지원금액은 총 3100만 원 규모로 인화된 임대료는 3월부터 적용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서울지역본부(동대문구 소재) 건물에 입점한 음식점과 식료품 매점 등 2곳에 대해 6개월간 임대료를 30% 인하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전국의 댐에 있는 보유 건물 휴게소 또는 매점 등으로 입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최대 6개월간 임대료를 35% 범위에서 인하했으며 한국환경공단 역시 대구 국가 산업 단지 내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달부터 다음 달까지 임대료, 시설 이용료,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감면 금액은 총 4000만 원가량이다.

◇기관장·임직원 급여 반납 확산… “코로나19 고통 분담”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고통을 나누기 위한 공공기관의 ‘급

여 반납’ 운동도 계속 확산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 총리를 포함한 정부 모든 부처 장·차관들은 이달부터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한 바 있다.

우선 한국전력과 전력그룹사는 이달부터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한다.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월 급여의 120%(월급여 10%×12개월)를, 차·실장급 직원은 월 급여의 36%(월 급여 3%×12개월)를 반납할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이달부터 정재훈 사장을 비롯한 본부장급 임원의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한다. 차·실장급과 부장급 이상 1000여 명도 일정 범위 내에서 개인이 금액을 결정해 4개월간 임금을 반납한다.

산업부 산하 연구개발(R&D)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IA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기관장도 급여 반납에 동참한다. 이들 기관 기관장은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한다. 이렇게 모인 재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고생하는 의료진과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중기부 ‘온라인 기획전’ 열어 소상공인 제품 판매

소진공, 성금 1200만원 쾌척
여경협, 대출이자 6개월 면제
SKB, 대학 인터넷 대역폭 확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정부와 협단체 그리고 기업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성금 1200만 원 상당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구대전)에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소진공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

한 것이다. 대구와 대전에 각각 전달되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취약계층에 손소독제, 마스크 등 구호물품 지원과 주거지 중점 방역작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성금 중 943만 원은 대구지역 내 감염병 전담병원 및 생활 치료센터 의료진·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방호복, 마스크 등 의료용품 전달로 지정 기탁됐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창업자들을 돕는다. 여경협은 ‘여성가장 창업 자금 지원 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대출금 24

억 원에 대해 4월부터 6개월간 대출이자 전액을 면제한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사업은 가장이 된 저소득층 여성이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연 2.0%의 금리로 최고 1억 원의 점포 임대 보증금을 지원받는 사업이다. 매년 약 60여 명의 지원 수혜자를 창출하고 있다. 여경협은 현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가치샵시다’ 플랫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다함께 위기극복’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사진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 온라인 기획전이 열린다. 26일부터 ‘가치샵시다’ 플랫폼 온라인 기획전을 열고, 50~7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내수 위축 및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 등으로 판로에 애로가 있는 지역특산물, 소상공인·전통시장 제품, 특히 대구·경북지역 피해

소상공인의 제품이 중점적으로 우선 판매한다.

SK브로드밴드는 ‘코로나19’로 온라인 개강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교의 인터넷 대역폭 업그레이드를 무료로 지원하고, ‘B tv 홈스쿨링 특별관’ 콘텐츠를 초·중 6학년까지 확대하는 등 교육 공백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최근 온라인 강의로 학기를 개강한 대학교 중 일부 학교에서 접속 과부하로 서버가 다운돼 영상이 끊기는 등 대학생들의 학습에 불편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대학생들이 집이나 카페에서도 원활하게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자사 전용회선 이용 객체인 14개 대학교의 인터넷 대역폭을 무료로 업그레이드했다.

최영희 기자 che@





장애라는 무거운 편견을 걷어내면 능력이 보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행복한 일터,
편견과 차별을 버리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용까지 체계적 지원



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이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지원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



연구개발
장애인고용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



장애인고용 30년,
함께 하는 도약
1990-2020

☎ 1588-1519 www.kead.or.kr

2월 車생산 20년 만에 최저… “유연근로제 확대해야”

車업계 재난 특별법 제정 건의

해외공장 폐쇄에 주52시간제 발목
500만대 중 60만대만 정상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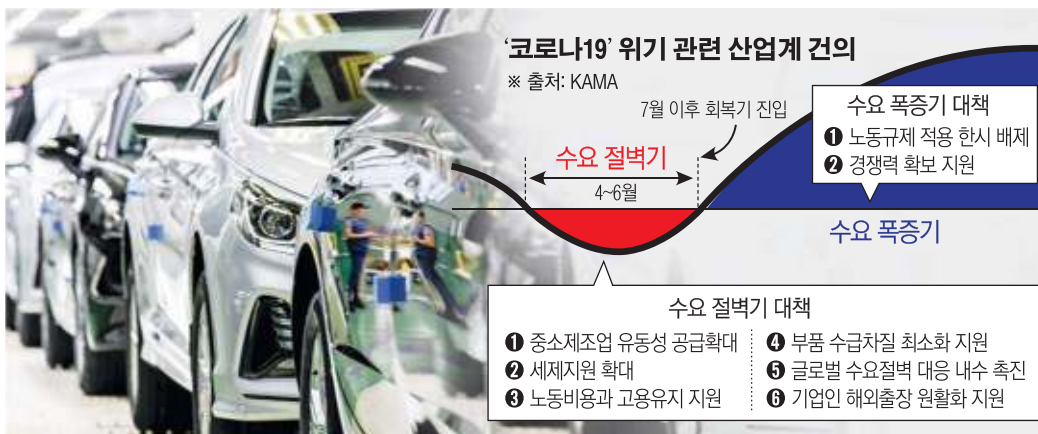
“코로나 사태 종식되면 수요 폭증”
생산손실 만회 위한 정부대책 촉구
전경련, 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요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2월 국내 완성차 총 생산이 20년 만에 최저치에 머물렀다. 연간 5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차업체의 해외공장도 속속 일시 폐쇄되면서 현재 60만대 수준만 생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차업체는 생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등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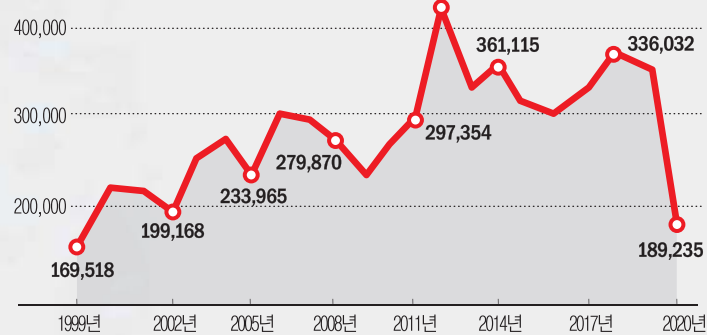
25일 현대·기아차와 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완성차 총생산은 18만9235대에 그쳤다. 2월 기준으로 1999년의 16만9518대 이후 가장 낮은 생산량이다.

1월 또는 2월에 ‘설 명절’이 끼면서 상대적으로 조업 및 판매일수도 불리하다. 이를 고려해도 올해 2월 국내 완성차 생산 감소는 이례적으로 폭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국발 부품 수급 차질로 공장별로 길게는 열흘 이상 휴업한 탓이다. 3월 들어 본격적으로 가동이 재개됐으나 이번에는 주 52시간에 발목이 잡혔다. 현대차는 주 40시간 근무 체제인 완성차 생산 공장 가동을 최대 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노동조합과 협상 중이지만 특별연장근로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동차업계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련 규제의 한시적 유예를



국내 완성차 총생산 추이
(단위: 대, 2월 기준)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KAMA) 회장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26개 기관이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영향 및 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 기조발언에서 “지난달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90% 감소한 데 이어 미국도 향후 3개월간 차 판매가 90% 감소할 전망”이라고 비판론을 폈다. 정 회장은 국내 자동차 기업의 해외공장도 인도, 미국, 유럽, 남미 등에서 연쇄적으로 폐쇄되고 있다고 소개한 뒤 “500만대 생산 공장 중 겨우 60만대 수준만 정상 생산되는 상황이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중소기업의 생존과 산업 생태계 붕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정 회장은 “시장 조사기관 J.D. 파워는 미국의 4월 자동차 판매량이 50% 이상 감소하지만, 연간 판매량은 10% 내외만 줄어든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는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 수요 폭증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정된 기간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고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요 폭증기에 대비해 ‘재난대응 특별노동조치법’ 등을 미리 마련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대응 특별노동조치법’은 정부가 정

한 재난 기간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재난 기간에는 주 52시간 근로규제 적용을 배제하고, 파견과 대체근로를 대폭 허용해 수요 폭증에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회장은 특별법 제정이 여의치 않다면 특별연장근로를 대폭 허용하고 유연근로 시간제를 확대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와 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이 제도는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일정 기간 효력을 정지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2009년 총 280건, 2012년 26건, 2016년 303건의 과제에 대해 시행된 바 있다. 전경련은 “코로나19로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가 기업들 생존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으로라도 과감하게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휴일 영업 허용,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록

부담 완화, 주 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등의 규제를 최소 2년간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기업이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유예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원샷법’ 적용 대상의 확대도 요청했다. 현재 과잉공급 업종만 법을 적용받다 보니 경영 상황이 심각한 항공운송업과 정유업은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김유진 기자 eugene@
유창욱 기자 woogi@

대형 유통사들 ‘코로나 비상경영’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위기 돌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함에 따라 유통업계가 비상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6일 ‘비상경영회의’를 소집해 위기상황 극복 전략을 논의했다. 신 회장은 화상 회의를 통해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룹 전 계열사들이 국내외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사업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의 비즈니스 전략을 효과적으로 변화시켜야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1월 코로나 대응 TF팀(C-TFT)을 운영 중인 롯데그룹은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측해 올해 2, 3분기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그룹의 경영계획 수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무관리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전 계열사에 안내하고, 각 사별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다.

이마트도 전사적인 구조 개선을 추진해 위기 극복에 나선다. 강희석 대표는 이날 열린 주주총회에서 “올해는 경쟁 심화와 코로나19 여파로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돼 초유의 경영환경이 예상된다”면서 “일회성 수익 강화 목적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의 근본적 경영체질 개선을 위해 비용혁신 및

원가 절감을 추진하고 운영 효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올해는 초심으로 돌아가 이마트를 재탄생시켜야 한다”며 “강점인 신선 및 가공식품은 온·오프라인 채널을 압도하는 경쟁력을 갖추고 온라인 영향을 많이 받는 비식품 부문은 과감하게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주총의장을 맡은 형태준 이마트 자원본부장은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사업성을 검토할 것이며, 중장기적 관점의 근본적 경영체질 개선을 위해 원가 절감을 추진하고 운영 효율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트레이더스는 스타필드 안성에 19호점 오픈 등을 통해 지속 성장을 추진하고, 노브랜드는 지속 성장 가능한 사업모델 구축을 진행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날 주총을 통해 ‘변화와 혁신의 DNA’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재영 대표이사는 “유례없는 시장 위협 속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고객 최우선 가치 △상권 1번 점 전략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등 3가지 중점 과제를 선언했다.

신세계는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장 대표는 “온라인 오프라인의 융합,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접목, 고객과 고객·고객과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플랫폼 구축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제2의 본업’ 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주현 기자 jooh@

달나라라고 수출하지 말라는 법 있어?

K-sure는 변화하는 세계 무역환경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무역보험 상품 및 고객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광고는 제6회 K-SURE 대학생 광고공모전 은상 수상작
(서경대학교 노동규)을 일부 수정하여 제작하였습니다.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

“실물경제 충격 커… 기업 지원 58兆론 부족할 수도”

전문가 ‘긴급금융지원’ 진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60조 원에 육박하는 금융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이조차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실물경제 충격이 크고, 향후 기업들의 신용 위험 불확실성도 상존한다는 점에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제2회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어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100조 원+알파(α) 대책을 발표했다”며 “글로벌 공급망(GVC) 쇼크, 글로벌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해외 진출 관련 기업들에 수출입은행을 통해 20조 원 규모의 긴급

2008년 정책·민간금융 기업 대출잔액의 16%에 불과 신용위험 어떻게 전이될지 불확실… 中企 자금난 심각 시중은행 등 100兆까지 공급할 수 있게 유동성 확보를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입 기업을 포함해 전체 기업 금융자금 규모는 58조3000억 원이다. 제1차 비상경제 회의에서 확정된 29조2000억 원에 더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공급을 각각 21조2000억 원, 7조9000억 원 확대한다. 이 밖에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20조 원),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4조1000억 원), 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 지원(7조 원),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10조7000억

원)을 더하면 기업긴급구조자금 규모는 총 100조 원이 넘는다.

단 기업 대출잔액 대비 공급량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했던 2008년에 못 미친다. 당시 기업 대출잔액은 약 450조 원이었는데, 정책금융에 시중은행 대출을 더한 금융자금 공급 규모는 총 72조 원이었다. 대출잔액의 16.0%에 달하는 규모였다. 반면, 지난해 말 기준 기업 대출잔액은 88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대출잔액 대비 정책금융(58조3000억 원) 비율은 6.6%에

불과하다. 50조 원 이상을 시중은행 등 민간에서 추가 공급하지 않으면 2008년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2008년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는 충격의 성질이 다르다. 그때보다 실물경제 쪽 충격이 크고, 신용위험으로 어떻게 전이될지도 불확실하다”며 “충격이 지금보다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책금융으로 푸는 58조 3000억 원에 더해 총 100조 원까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에서도 어느 정도는 유동성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대기업은 회사채 발행이나 자체 유동성 확보를 통해 일정 기간 버틸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당장의 경영자금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도 경영안정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총력을 쏟고 있다.

20조 원에 달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일정 부분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만기가 1년 미만인 회사채 등은 약 230조 원 규모다. 이 중 지원 대상인 A등급 이상 채권은 200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남 연구위원은 “만기가 도래한 채권 잔액을 감안했을 때 20조 원 정도는 적절할 것 같다”며 “다만 실물충격이 왔을 때 금융시장에 어떻게 위험이 전이될지 불확실하므로, 향후 금융시장 상황의 변화를 보고 추가 확대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이것이 진단시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송파구에 위치한 진단키트 업체 씨젠을 찾아 천중윤(왼쪽) 대표로부터 진단시약 생산 및 개발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씨젠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기업 중 한 곳이다. 연합뉴스

정부, 초중고 ‘온라인 개학’ 검토

e학습터·EBS온라인클래스 증설해 원격 교육 계획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초·중·고교의 온라인 개학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공 제회관에서 열린 시도교육청·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한국교육방송공사(EBS) 온라인 업무협약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격 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대표적인 온라인 학습방 운영 체계인 e학습터와 EBS온라인클래스의 기반 시설을 증설해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대비하기로 했다. e학습터는 하루 900만 명 접속, EBS온라인클래스 하루 150만 명 동시 접속이 가능하도록 한다.

더불어 양질의 원격교육 콘텐츠를 확충하기 위해 EBS온라인클래스에 총 52종의 방송 중·고교 콘텐츠를, e학습터에는 시도별 특화자료와 교사 자체제작 자료를 포함한다.

학교별 대표 교원, 교육부, 시도교육청,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1만 커뮤니티’를 운

영해 원격교육 운영방법을 공유하고 애로 사항을 즉각 개선한다. 교육청별로 원격교육 일반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원격교육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원격교육이 익숙하지 않은 교사도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원격교육 가이드’를 제공하고, 원격교육 통합지원 사이트 ‘학교온’(On), 1대1 원격지원 서비스 ‘교사온’(溫), 유튜브 ‘온라인 학습방 따라하기’ 채널 등을 운영한다.

최소한의 원격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한 소의 학생을 위해 저소득층 대상 교육정보화 교육비 지원, 교육청·학교 스마트기기 대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별로 3차 휴업이 종료되는 다음 달 5일까지 온라인 개학이 가능한 원격수업 체제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구체적인 원격 수업 운영 기준안은 현장 의견 수렴 후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해외 유입 확진자에 방역망 구멍… 지역전파 ‘비상’

무증상 입국자 검역 무사통과… 지역사회서 17명 확인 美 확진 속도 빠르고 입국자 많아… 전수조사 가능성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주춤한 가운데 신규 확진자 절반 이상이 해외 유입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유럽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등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무증상으로 입국해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 100명 중 51명(51%)이 해외 유입 관련 확진자라고 밝혔다. 이날 국내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기(14명)와 비교하면 3배 수준이다. 현재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에서도 추가 확진자는 14명에 그쳤다.

25일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 지역은 유럽이 29명, 미주가 18명(미국 13명), 중국 외 아시아가 4명이다. 유럽과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귀국하는 국민이 늘었고, 확진자도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유럽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공항검역소 내 임시격리 시설에서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확진되면 병원 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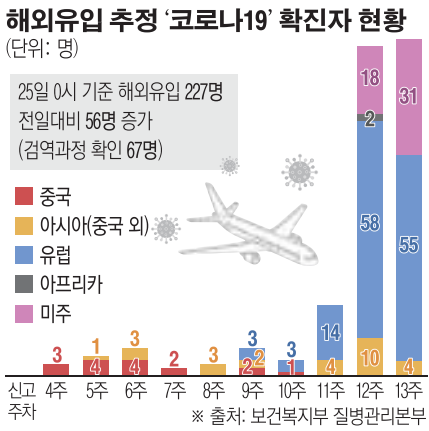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도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게 된다. 하지만 해외 유입 확진자들이 방역 그물을 뚫고 지역으로 전파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이날 발생한 해외 유입 확진자 51명 가운데 공항 등 검역에서 확인된 사례는 34명이고, 나머지 17명은 지역사회에서 확인됐다.

입국 시 유증상자만 진단검사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은 미국발 입국자의 확진 사례가 늘면 전수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방역총괄반장은 “미국 입국자 중 80% 이상은 유학, 출장 등에서 돌아오는 내국인”이라며 “앞으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수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이들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유럽발 입국



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했지만, 1200~1400명씩 물리는 입국자를 감당하지 못해 24일 오후 2시부터 내국인 무증상 입국자는 귀가 조치 후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들 무증상 입국자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파 우려도 여전한 상황인 데다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뤄질 경우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크다.

한편 지금까지 해외 유입 사례는 모두 227명으로 전날 171명보다 56명이 늘었다. 지역별로 중국이 16명, 중국 외 아시아 27명인 데 반해 유럽이 133명, 미주가 49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이달 3주 차 유럽발 입국자 1만 명당 확진자 수는 86.4명, 4주 차 미국발 입국자 1만 명당 확진자 수는 28.5명으로 집계됐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은행, 외화 LCR 부담 규제 완화 이번 주 발표

〈유동성 커버리지〉

90% 휴업수당 소업종 확대

▶1면서 계속

이번 방침은 무엇보다 휴업수당 자부담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자칫 폐업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대량 실직 사태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3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급증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2월 실적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업급여 신청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퇴직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다.

홍 부총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외화자금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던 외환 분야 거시건전성 규제 조치들을 현 상황에 맞게 완화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외화조달 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의 외화차입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은행들의 원활한 무역금융 공급 등을 유도하기 위해 외화 유동성커버리지(LCR) 규제(현 80%)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고용유지지원규모			
	기존	1차 인상	2차 인상
우선지원대상기업		75% (4분의3)	90% (10분의9)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된 우선지원대상기업	67% (3분의2)	90% (10분의9)	90% (10분의9)
대기업	50% (2분의1)	67% (3분의2)	67%* (3분의2)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된 대기업		67%* (3분의2)	

*총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인 경우 75%(4분의3)

리면서 “지난주 발표된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이 조속히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외환 교환시장의 외환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내 외환시장에서 안전자산인 달러를 중심으로 외환자금 이탈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중반대로 치솟고, 코스피지수가 1400선까지 추락한 것도 이 때문이다.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경우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우리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내수 부진 심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외환시장 자금 이탈 방지가 시급한 상황이다.

고위공무원·국회의원 3명 중 1명은 '다주택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

‘주택 1채 남기고 팔라’ 권고
노영민 비서실장도 2채 보유
의원 4분의 1 ‘강남 3구’에 집
고위공무원 평균재산 13억
10명 중 7~8명은 재산 늘어

정부와 청와대에 재직 중인 고위공직자 및 20대 현역 국회의원 3명 가운데 1명은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해 '주택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는 권고를 했지만 공직사회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노 실장 본인도 다주택자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26일 공개했다. 청와대의 경우 청와대 참모 3명 중 1명꼴인 16명이 다주택자(3주택자 1명, 2주택자 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의 경우 주택 3채를 갖고 있었다.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충북 청주시 아파트 등 2채를 신고했다.

국회의 경우 20대 국회의원 287명 중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본인·배우자 명의 기준)는 100명으로 전체의 34.8%였다. 정당별로 보면 미래통합당의원이 52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29명, 민생당 9명, 무소속 5명, 미래한국당 3명, 정의당 1명 순이었다. 특히 전체 의원의 4분의 1가량인 71명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정부부처에서는 고위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장 등 재산이 공

개된 중앙 부처 재직자 750명 가운데 248명이다주택자였다. 2주택자는 196명이었고, 3주택자는 36명, 4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16명이었다.

또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10명 중 7~8명은 지난 1년간 재산이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고위공직자 1865명이 작년 말 기준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3억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600만 원 증가했다. 신고자 가운데 77.5%인 1446명은 종전에 신고한 것보다 재산이 늘었다. 국회의원 또한 조사대상 287명 가운데 73.5%인 211명의 재산이 증가했다.

주요 인사들의 재산을 보면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이 19억4900만 원으로 종전 신고보다 6600만 원 줄었다. 재산이 감소한 것은 모친이 지난해 별세하면서 재산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참모진 중에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약 5억 5000만 원 증가한 58억5100만 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많았다. 국회에서는 게임업체 웹젠 이사회 의장을 지낸 김병관 민주당 의원이 2311억4449만 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어 김세연 미래통합당 의원이 853억3410만 원을, 같은 당 박덕홍 의원이 559억8502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민주당 박정, 통합당 최교일·성일종·윤상현·강석호·김무성·김삼화 의원도 500억 원 이상을 신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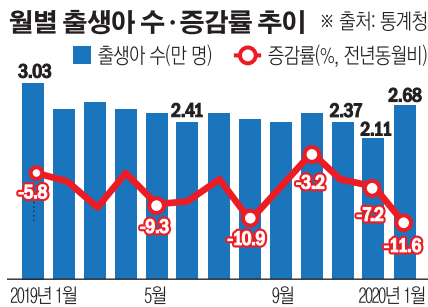
한편 사법부 주요 인사들의 재산도 증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보다 4억6000만 원가량 늘어난 14억172만 원을 신고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보다 9311만9000원 증가한 66억8388만 원을 신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산총액은 15억6446원으로 집계돼 1년 새 9900만 원이 늘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1월 출생아 수 전년比 11.6%↓ ... 성장동력 저하 우려

사망자 수 더 많아... 2040년 GDP 줄고 국민연금 악영향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3개월째 이어지고 올해 처음
으로 출생아가 20만 명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은 한국 경제에 기본적으로
경제활력을 저하시키고 국민연금·건강보
험 고갈, 재정 위기, 지방 소멸 등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악재다.

통계청은 25일 2020년 1월 인구 동향을 통해 1월 출생아 수가 2만6818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522명(11.6%) 줄었다고 밝혔다. 출생아에서 사망자 수 2만8471명을 뺀 인구 자연감소는 1653명 마이너스다. 인구 자연감소는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이고 1월 기준으로는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출생아 수가 감소한 것은 2015년 12월 781명 감소한 이래 50개월 연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출생아



수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
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사망자 수(32만3000명)가 출생
아 수(29만2000명)를 앞질러 인구가 3만
1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은 우선 잠재성장률의 빠른 하락
세에 기여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저출산
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2.5%에서 2021~2025년에는 2.1%, 2026

~2030년에는 1%대 후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간한 '장래 인구특별추계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보면 출산을 감소는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2040년 이후에는 감소 폭이 커진다. 2040년 GDP 총액 증감률은 -1.0%, 2050년에는 -2.8%, 2060년에는 -4.7%로 마이너스 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도 악재다. 지난해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어 들고 있으며 2054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민연금을 내는 이들과 받는 이들은 각각 2204만 명과 522만 명이지만, 2050년에는 이 수치가 1495만 명 대 1601만 명으로 역전된다. 지난해 10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65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75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good@

세종=곽도흔 기자 sogood@



모의 개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25일 전북 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투표용지 수작업 모의 개표 시연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세청, 라미드그룹 '전방위' 특별 세무조사

국세청이 최근 중견 호텔 및 리조트 회사인 라미드그룹(옛 썬앤문그룹, 회장 문병욱) 주력 계열사를 상대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제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제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라미드관광 본사와 강북구 소재 호텔빅토리아, (주)라군 그리고 대지개발 등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부 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와 다른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이고, 조사는 연말 말까지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조사4국 조사 특성을 감안할 때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혐의와 무

관하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라미그그룹은 그간 적잖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우선, 2018년 10월경 대지 개발은 2013년부터 과도한 부채로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해 특수관계인의 차입금을 우선 상환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또 다른 계열사 라마다 서울 호텔은 지난해 파견직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구설에 휩싸였다.

이후 회사 측에서는 언론사에 더 이상 제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밀린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노란우산은 KBIZ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연 최대 500만 원 소득 공제

중장기 목돈 마련

공제금 압류 금지

연 복리 이자 지급

마음 폭 놓고 오래오래~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씬세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대한민국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세법에 따라 부동산업대업소득과 법인기업의 대표자 중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Google play /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KBIZ 중소기업중앙회

글로벌 ‘달러가뭄’에 亞 신흥국 ‘부채폭탄’

통화 하락에 자금조달 비용 급증
달러빚, 4년後 444억 달러 정점
인도네시아와 인도가 특히 위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전례 없는 세계 대공황 불안에 투자자들이 일제히 달러 자산에 몰리면서 글로벌 달러 대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 신흥국들은 수년간 막대한 외환 보유액을 축적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왔지만 이례적인 달러 부족 위기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일 위기에 몰렸다고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진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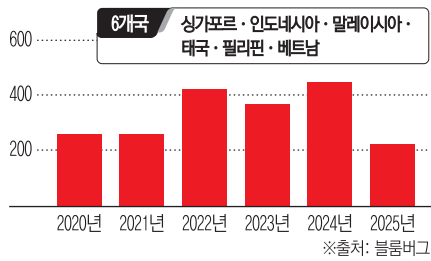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도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주요 6개국은 지난해 부채 감축에 힘써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달러 부채를 251억 달러로 줄였다. 그러나 상환해야 할 달러 부채는 2022년에 419억 달러로, 올해보다 67% 급증하고 나서 2024년에는 444억 달러로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인 불황에 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볼 수 없었던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또 1998년 외환 위기의 쓰라린 기억이 있는 동남아 국가들은 다른 지역 신흥국보다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완충망을 촘촘히 구축했다는 평가다. 경상수지 흑자와 비교적 풍족한 외환 보유액, 통화 스와프 계약 등이 그 증거다.

그럼에도 애널리스트들은 인도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코로나19 전염 억제에 경제 활동의 많은 부분을 폐쇄하면서 달러 부채가 급증할 위험이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무디스인베스터스서비스의 크리스티앙 드 구즈만 선임 부사장은 “그 어떤 동남아 국가도 현재 즉각적인 부채 상황 압박을 받

인도·동남아 주요 6개국의 연도별
상환해야 할 달러 부채 (단위 : 억 달러)



지는 않고 있다”며 “그러나 현지 통화는 이미 평가절하 압력을 받고 있고 실제로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했을 수 있어서 어려운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른 국가보다 해외 자본 유입에 더 의존하고,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동시에 적자인 ‘쌍둥이 적자’를 안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인도가 특히 위험하다고 블룸버그는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정적자 한도를 국내총생산(GDP)의 3%에서 5%로 올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올해 2.5~3.0%에 이를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올해 미국 달러에 대해 약 16% 하락해 아시아에서 가장 성적이 좋지 못한 통화가 됐다.

인도도 비슷한 압력에 놓였다. 이달 들어 인도 루피 가치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정부가 3주간의 전국봉쇄령을 선언하고 나서 인도증시 섀넥스지수는 23일 13% 폭락해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말레이시아도 코로나19에 취약한 아시아 신흥국으로 꼽히고 있다.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은 18일 보고서에서 “말레이시아는 상품 수출이 GDP의 15%를 차지하는 등 해외 의존도가 커서 취약하다”며 “달러 부족에 따른 글로벌 신용위기에서 비롯된 즉각적인 유동성 압박 이외에도 상품 가격 하락이 또 다른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美, 2조 달러 부양책 합의…글로벌 증시 급등

여야 기업지원 이견 해소 극적 타결… 닛케이 8%↑ 등 亞 증시 훈풍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2조 달러(약 250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이 25일(현지시간)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기침체 공포로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던 글로벌 증시에 오랜만에 훈풍이 불었다.

CNN에 따르면 이날 새벽 백악관과 상원은 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기업과 지역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CNN은 △미국 개인과 가족에 직접 현금으로 2500억 달러 지급 △3500억 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 지원 △주·도시·기업에 대한 5000억 달러 자금 지

원 △2500억 달러 규모의 실업수당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규모와 범위로 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라면서 “유동성을 공급해 신속히 경기를 부양하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경기부양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경기부양책(7000억 달러)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2008년에는 민간은행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이 핵심이었지만, 이번에는 기업 파산과 실업 증가 방지를 최우선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항공업 및 숙박업, 요식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포함됐고, 중소기업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급여

미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활동이 크게 제약, 2분기 경제성장률이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은행은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투자자와 기업은 거액의 재정 지출을 요구해왔다.

이런 요구가 이뤄지면서 투자 심리도 크게 개선됐다. 25일 아시아증시는 일제히 큰 폭으로 올랐다. 일본 닛케이 225지수가 8.04% 폭등 마감했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2% 넘게 뛰었다. 전날 미국 뉴욕증시는 3거래일 만에 급반등에 성공했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112.98포인트(11.37%) 폭등한 2만0704.91에 거래를 마쳤다. 상승폭은 1933년 이후 약 87년 만의 최대였다.

김서영 기자 0jung2@



내년에 다시 걸 수 있을까

‘2020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코스 중 하나였던 일본 아이치현 이나자와 시청에서 25일 한 남성이 침울한 표정으로 홍보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전날 저녁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전화 회담을 하고 올 7~8월 열릴 예정이던 도쿄올림픽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전격 합의했다. 올림픽이 연기된 건 사상 처음이 이나자와/AP연합뉴스

〈자사주 매입〉

‘바이백 잔치’ 美기업, 결국 정부에 ‘SOS’

빚갚기 대신 주가 방어 힘쓰던
항공·호텔업계, 경영위기 봉착

자사주 매입(바이백)에 힘을 쏟던 미국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가 닥치자 연방 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의 대기업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법인세 감세로 지난 2년간 이익 규모를 증대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설비투자나 부채 상환보다는 자사주 매입에 돈을 투입하면서 주가를 방어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다가 이번 코로나19로 타격을 입게 되자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에 기대려 한다.

예를 들어 보잉은 737맥스 사태로 지난해 4월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기 전까지 2년 동안 자사주 매입에 117억 달러를 썼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은 작년 한 해 자사주 매입에 20억 달러를 투입했으며, 아메리칸항공 역시 지난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11억 달러를 들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여행객들의 발이 묶이자 항공 산업은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고, 항공업계는 정부에 5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요청했다.

세계적인 호텔 체인 힐튼은 이달 초에도 2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다 며칠 후 수익 전망을 철회했다. 현재 호텔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15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 지원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

이 같은 상황은 자사주 매입에 대한 반발을 심화시키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테미 볼드윈 위스콘신주 상원의원은 이메일을 통해 CNN에 “2017년 세계 개편으로 혜택을 누린 기업들이 회사나 직원에게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대신, 자사주 매입에 수십억 달러를 들인 데 대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일 그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했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부 지원으로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에 대해 자사주 매입을 제한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20일 이와 관련해 “자사주 매입을 제한해도 괜찮다”며 “나는 그들이 수익 달러를 가지고 자기 주식을 다시 사는 걸 원치 않는다”고 언급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골드만삭스 “金 사라…1년內 1800달러 간다”

“최후의 통화” 추천하자 금값 하룻새 6% 급등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 매수를 강력하게 추천했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24일(현지시간) 투자자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금은 현재 변곡점에 있고, 향후 12개월 안에 18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며 매수를 추천했다고 마켓워치가 보도했다. 골드만삭스의 추천에 힘입어 이날 국제 금값은 전 거래일 대비 온스당 6.0%(93.20달러) 오른 1660.80달러에 마감했다. 하루 상승 폭으로는 11년 만에 가장 컸다. 지금까지 최고가는 2011년에 기록한 1900달러다.

제프리 커리가 이끄는 골드만삭스 원자재 부문 애널리스트들은 “오랫동안 금은 최후의 수단 통화이며, 정책 당국자들이 지금 같은 충격을 완화하고자 행동할 때 일어나는 통화 가치 하락의 헤지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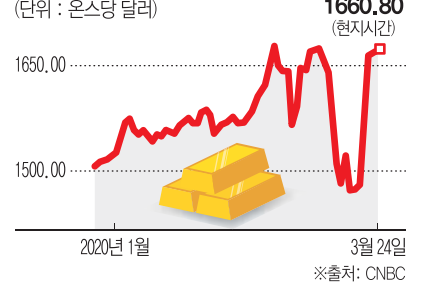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시장 혼란 속에서 금은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선방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풍지대는 아니었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확대로 폭등했다가 이내 극단적인 현금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 한 달간 금값은 2% 내렸다.

그러나 전날 발표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무제한 양적완화 계획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금 가격은 다시 급격한 오름세를 보였다. FT는 미국 달러 약세와 연준의 다양한 금융완화 정책들, 특히 글로벌 달러 시장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유지하기 위해 해외 중앙은행과 통화 스와프에 적극 나선 것이 금 수요를 자극했다고 분석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통화 보유자들이 금 등 귀금속을 구매할 때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슈로더스의 짐 루크 펀드매니저는 “기준금리가 0%에 가깝게 유지될 것”이라며 “그러는 사이에 정부는 인플레이

최근 3개월간 금값 추이



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 재정 정책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며 “직접적인 ‘헬리콥터 머니’ 형태의 개입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금값 상승에 이보다 더 낙관적인 환경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스코샤뱅크의 닉키 쉴스 애널리스트는 “물리적 수요가 인도 같은 일부 지역에 몰려 있어서 투자자들은 조심해야 한다”며 “유가에 민감한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대한민국은 이길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

텅 비어버린 거리에서도
굳건히 버티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

수많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켜내는 자가격리자와 환자분들

그 동안의 모든 고난도 결국 이겨냈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 모델
휠체어펜싱 김선미 선수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연임’ 인정 못한다는 금감원… 법정 다툼 비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따른 중징계(문책경고)를 뒤로하고 연임에 성공했다. 손 회장은 지주사 전환 이후 추진해 온 비은행 부문 사업과 소비자보호 등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3년간 우리금융을 이끌겠다는 포부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손 회장의 연임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향후 경영 행보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25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손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임기는 2023년 3월까지 3년이다. 표결로 진행된 손 회장 연임안은 2대 주주인 국민연금(7.71%)이 반대했지만 무난하게 가결됐다.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17.25%)와 사모펀드(PEF)인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푸본생명·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한화생명·동양생명 등 6대 과점주주(24.58%), 우리사주(6.42%) 등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손 회장의 연임이 결정됐다.

손 회장은 주총 이후 취임식을 생략하고 공식 일정으로 영업 현장을 방문했다. 전날 취임한 관광식 신임 우리은행장과 함께 남대문시장 지점을 함께 방문해 현장 경영에 나섰다. 손 회장은 영업점 방문을 마치고 즉시 그룹 CEO들을 화상회의로 소집

반격 나선 금감원

손태승 회장의 중징계 효력 정지
이번주내 ‘항고장’ 제출 소송 준비

우리금융 핵심사업 차질 불가피
자산위험 평가방식 변경 ‘먹구름’
M&A 위한 추가 자금 확보 비상
신남방 등 해외 진출 걸림돌 우려

해 ‘그룹 비상경영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다. 손회장은 회의를 통해 “현재는 코로나19에 대한 재난 위기 대응을 넘어 그룹 경영 전반에 비상경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존의 위원회를 코로나19 대응반, 경영리스크 대응반, 민생금융 지원반 등 3개 부문으로 확대 편성한다”고 말했다.

◇체면 구긴 금감원 “즉시항고” 법적 대응 예고 = 손 회장의 연임으로 중징계를 내렸던 금감원이 체면을 구기게 됐다. 윤석현 금감원장은 DLF 책임이 손 회장에게 있다며 강도 높은 제재를 수차례 언급했다. 손 회장이 연임을 강행하면서 금감원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 일지	
2019 12월 30일	우리금융 임추위, 차기 회장 손태승 만장일치 추천
2020 1월 30일	금감원 제재심, DLF 손실 관련 손 회장 중징계 (문책경고) 의결
3월 5일	금감원,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검사서 통지
8일	손 회장, 법원에 금감원 제재 취소 청구소송 및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일	법원, 손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임
25일	우리금융, 주총 통해 손 회장 연임 확정
27일(예정)	금감원, 징계 효력정지 신청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 제출

금감원은 징계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에 불복해 이번 주 중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일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판결로 손 회장의 연임이 가능했다. 금감원은 서류 작업 등을 마치는 대로 27일까지 즉시 항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손 회장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낸 ‘징계 효력 취소 청구’ 본안 소송도 준비 중이다.

손 회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불법적인 화우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본안 소송에 대비한다. 본안 소송에서

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갈 길 비뚤 우리금융, M&A등 핵심 사업 차질 = 손 회장은 앞으로 3년간 지난해 출범한 지주 체제를 더 공고히 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의 완전한 민영화, 증권사·보험사 등에 대한 대규모 인수합병(M&A)을 통한 사업 확장 및 다각화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우리금융은 19일 프르덴셜생명 인수 본입찰에 참여한 IMM PE의 인수금융을 주선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과 길고 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지면서 손 회장과 우리금융지주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이 금감원과 등을 지면서 올해 1분기로 예정된 자산위험도 평가 방식 변경도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우리금융은 현재 자산위험도 평가방식을 ‘표준등급법’에서 ‘내부등급법’으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 당국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평가 방식이 바뀌어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M&A를 위한 추가적인 자금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행정소송이 현실화되면서 이 작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감원이 내부등급법 전환을 승인하지 않는 이상 우리금융이 금융그룹 체제를 갖추기 위해 증권·보험사 인수에 나서기가 어려워진다.

금감원은 앞서 CEO 징계뿐만 아니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6개월간 사모펀드를 팔 수 없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조치로 우리은행은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9월)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해외 진출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남방 지역을 비롯한 해외 금융감독기관은 M&A를 진행할 때 국내 감독기관에서 받은 징계 기록을 확인한다. 금감원이 손 회장을 징계했기 때문에 해외 진출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

김법근 기자 nova@



‘코로나 극복’ 금융 지원 총력
은성수(오른쪽) 금융위원장이 25일 열린 전 금융권 코로나19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금융사의 코로나19 금융지원 관련 위험가중치 조정에 대해 “금융당국 임의가 아닌 국제적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수은, 코로나 피해 기업에 20兆 긴급 수혈

신규 대출·만기연장 등 수출입·해외진출 업체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해외진출 기업에 20조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지난달 7일 수은이 내놓은 1차 3조7000억 원보다 16조3000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총 20조 원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에 11조3000억 원, 신규 대출(6조2000억 원) 및 보증(2조5000억 원)에 8조7000억 원이 지원된다.

우선 코로나19 피해로 수출입·해외 사업 기반 유지가 어려운 기업에 2조 원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수출 여건이 급격하게 악화하는 상황을 감안해 코로나19 피해기업과 함께 혁신성장,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대기업까지 대상을 늘려 2조 원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 만기연장에 더해 유동성 공급을 통한 수출지원을 위해 신규 운영자금 대출 2조 원을 추가 제공하고, 보증 2조5000억 원도 낮은 보증료율로 지원한다.

신규 대출 시 대출한도는 기존 대비

최대 10%포인트(p) 우대하고, 보증의 경우 보증료율을 최대 0.25%포인트 우대한다.

신용등급이 없는 수출기업의 지원을 위해서 중소 수출업체를 위한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200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해당 중소기업의 신용평가 시 정성평가를 생략하고 재무제표만으로 신속 심사하고, 최대 0.90%p까지 우대금리를 준다.

수은은 “피해 기업은 가까운 은행의 영업점 및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상담과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여신업계 ‘중도상환수수료’ 2%이하로 낮춘다

금융당국은 25일 카드와 캐피탈사 중도상환 수수료 등 여신수수료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여신전문 금융사의 여신수수료 운영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중도상환 수수료 산정방식 개선 △취급수수료 수취기준 명확화 △담보신탁수수료 여전사 부담 △인지세 부담비용 명시 등이다.

금융당국과 여신업계는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기존 3%대에서 2% 이하 수준으로

낮춘다. 취급수수료 수취기준을 만들고, 부동산담보 신탁대출 관련 부대비용은 여신전문사가 부담하도록 개선한다. 인지세 부담비용과 금액 명시도 추진된다.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기존 금리연동 방식을 폐지해 고신용자 역차별을 막는다. 2%로 수수료율을 낮추면 소비자는 연간 38억 원을 아낄 수 있다. 또 소비자가 남은 기간이 짧아질수록 수수료를 적게 부담하도록 중도상환 수수료 산정 방식을 체계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 경우 약 14억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이동면 BC카드 사장 취임 “우리 회사만의 길 만들 것”

BC카드는 25일 이동면(사진) 신임 사장이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사장은 이날 서울 을지로타워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취임했다. 이 사장은 취임 첫 메시지에서 △본업 경쟁력 강화 △신규 사업 적극 발굴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 사장은 취임사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비용 효율성, 신뢰를 바탕으로

프로세스 분야에서 1위가 되어야 한다”며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은 ‘스마트 BC’로 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BC카드는 금융과 정부기관, 유통, 상권 등 다양한 영역의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맞춤형 고객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AI를 적극 활용해 디지털 분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글로벌 악재에도... 은행, 해외수익 1.2兆 선방

신남방 전년 대비 33.6% 증가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악재 속에서도 지난해 은행들이 해외에서 9억8800만 달러(약 1조2147억 원)를 벌어들였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 해외점포의 당기순이익은 9억8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0.4% 늘었다.

지역별로는 제2의 교역 시장으로 떠오른 신남방에서 3억6440만 달러를 벌었다. 전년 대비 33.6% 증가한 규모다. 베트남이 1억5560만 달러(전년 대비 17.1%)의 순이익을 거둬도 호황을 누렸고, 싱가포르도 5310만 달러(12.3% ↑)로 선전했다. 인도네시아만 5190만 달러에 그쳐 신남방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40.4% ↓)을 보였다.

전통 시장으로 꼽히는 중국과 홍콩도 지난해 순이익이 각각 1억110만 달러, 1억491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4.1%, 14.6% 쪼그라들었다.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수는 195개(39개

국가별 당기순이익의 현황 (단위: 100만 달러, %)					
구분	2017년	2018년(A)	2019년(B)	증감(B-A)	증감률
중국	108.3	153.8	101.1	-52.6	-34.2
홍콩	123.8	174.6	149.1	-25.5	-14.6
미국	72.0	63.1	82.9	19.7	31.2
일본	91.9	90.0	99.3	9.3	10.4
영국	66.8	68.4	80.7	12.3	17.9
신남방	239.0	330.8	364.4	33.6	10.2
베트남	61.0	133.0	155.6	22.7	17.1
인도네시아	100.5	87.1	51.9	-35.2	-40.4
싱가포르	40.3	47.2	53.1	5.8	12.3
기타	102.2	103.2	110.5	7.3	7.0
합계	804.0	983.9	988.0	4.1	0.4

국)로 1년 전과 비교해 5개 늘었다. 8개 점포가 새로 생겼고, 3개는 문을 닫았다. 점포 신설은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등 신남방 지역과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집중됐다.

지역별로 보면 베트남(19개), 중국·인도(각 16개), 미얀마(14개), 홍콩(11개), 캄보디아(10개) 등 아시아 지역이 135개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해외점포 총자산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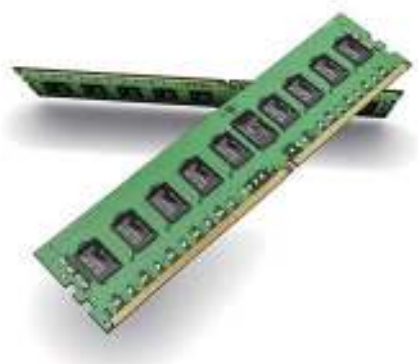
1336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정이자여신비율은 0.63%로 0.03%포인트(p) 올랐고,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70%로 0.16%p 하락했다.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현지화 지표 종합평가등급은 평균 2등급으로 2018년(2-등급)보다 1단계 올랐다.

박선현 기자 sunhyun@

“반도체, 코로나 이후 대비하자” 삼성전자 ‘초격차 기술’ 가속

D램에 업계 첫 EUV 공정 적용
고객사에 모듈 100만여 개 공급
내년 4세대 10나노급 D램 양산
프리미엄 메모리 시장 선도 전략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D램에 EUV (극자외선) 공정을 적용해 양산 체제를 갖췄다. EUV 공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차례 현장점검에 나설 정도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온 사업이다.

삼성전자는 EUV 공정을 적용해 생산한 1세대(1x) 10나노급 DDR4 D램<사진> 모듈 100만 개 이상을 공급해 글로벌 고객의 평가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메모리 업계 최초로 차세대 D램 제품부터 ‘EUV 공정’을 전면 적용, 반도체 미세공정의 한계를 돌파할 체제를 갖췄다.

EUV 노광 기술을 적용하면 회로를 새기는 작업을 반복하는 멀티 패터닝(Multi-Patterning) 공정을 줄이면서 패터닝 정확도를 높িয়ে 된다. 이를 통해 성능과 수율을 향상시키고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EUV 공정으로 14나

노 초반대 ‘4세대 10나노급(1a) D램 양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향후 차세대 제품의 품질과 수율도 기존 공정 제품 이상으로 향상시킬 예정이다.

EUV를 이용해 만든 4세대 10나노급(1a) D램은 1세대 10나노급(1x) D램보다도 12인치 웨이퍼당 생산성을 2배 높여 사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내년에 성능과 용량을 더욱 높은 4세대 10나노급(1a) D램(DDR5·LPDDR5)을 양산하고 5세대, 6세대 D램도 선행 개발해 프리미엄 메모리 시장에서의 기술 리더십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DRAM 개발실 부사장은 “업계 최초로 EUV 공정

을 D램 양산에 적용해 글로벌 고객들에게 더욱 차별화된 솔루션을 한발 앞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내년에도 혁신적인 메모리 기술로 차세대 제품을 선행 개발해 글로벌 IT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DDR5·LPDDR5 D램 시장의 본격 확대에 맞춰 글로벌 IT 고객과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업체간 다양한 표준화 활동을 추진해, 차세대 시스템에서 신제품 탑재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또 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 평택 신규 라인을 가동함으로써 증가하는 차세대 프리미엄 D램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양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4월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 당시 EUV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아갔으며, 올해 1월과 2월에도 화성 반도체연구소와 세계 첫 EUV 전용 생산기지인 V1라인을 방문해 개발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EUV 공정을 적용한 7나노 반도체 제품 출하를 시작했으며, 올해에는 차세대 3나노 파운드리 기술도 선보였다.

송영록 기자 syr@



현대차 ‘7세대 아반떼’ 사전계약 실시

‘1.6 가솔린’ 1531만 원부터

현대자동차가 7세대 ‘올 뉴 아반떼<사진>’의 주요 사양과 가격대를 공개하고 25일 사전계약을 시작했다.

현대차는 내달 7일, 개발을 주도한 젊은 연구원들이 아반떼를 소개하는 ‘올 뉴 아반떼 디지털 언박싱’ 영상을 현대차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고 본격 판매에 돌입할 예정이다. 가격은 △1.6 가솔린 1531만~2422만 원 △1.6 LPi 1809만~2197만 원이다.

향후 1.6 하이브리드와 고성능 N버전도 나온다.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6 MPI 엔

진은 최고출력 123마력을 바탕으로 복합 연비 15.4km/ℓ를 낸다. 1.6 LPi 엔진은 최고출력 120마력으로 복합연비 10.6km/ℓ를 기록했다.

3세대 준중형 신규 플랫폼을 바탕으로 개발한 새 모델은 효율적인 연비, 2열 레그룸, 트렁크 용량 등의 공간 활용성, 한층 높아진 안전성이 특징이다.

올 뉴 아반떼에는 현대차 최초로 도입한 현대 카페이가 탑재됐고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이탈방지 보조 등 상위 트림 사양이거나 엔트리 트림에 선택 사양으로 제공하던 다양한 안전 사양을 기본으로 도입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5G 앞세워… LG, 스마트폰 시장 총공세

애플 점유율 높지만 5G폰 없어
프리미엄 5G폰 ‘LG V60 씽큐’
다음달 도쿄모 통해 출시 ‘선공’
중저가 신제품도 7월 내놓을 듯



LG전자가 다음 달 일본 시장에 출시할 5G 스마트폰 ‘LG V60 씽큐’. LG전자 일본법인 홈페이지 캡처

LG전자가 일본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음 달 5G(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에 이어 일본 전용 중저가 스마트폰을 판매할 예정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인 NTT 도코모와 중저가 스마트폰 신제품 ‘스타일(Style)3’ 출시 시점을 논의하고 있다. 7월 출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일 시리즈는 LG전자의 중저가형 스마트폰인 Q·K 시리즈와 다른 제품군으로, 일본에서만 판매되는 스마트폰이다.

스타일3는 중저가 제품이지만, 플래그십폰 못지않은 성능을 갖췄다. 6.1인치 풀비전 디스플레이와 3500mAh(밀리암페어시) 배터리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IP68 방수·방진 등급을 갖췄다. 다만 5G는 지원하지 않는다.

다음 달에는 NTT 도코모를 통해 최신 5G 스마트폰 ‘LG V60 씽큐<사진>’를 출시할 예정이다. 국내에 판매되지 않는 V60 씽큐에는 그래픽 구동에 최적화된 퀄컴의 AP(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 스냅드래곤 865가 적용됐다. 6.8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와 5000mAh 대용량 배터리를 갖췄고, 후면에는 6400만 화소 메인 카메라와 13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가 도입됐다.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듀얼 스크린까지 무료로 얻을 수 있다.

LG전자는 일본에서의 선전을 통해 스

마트폰 사업 실적 개선을 노린다. LG전자 MC(모바일커뮤니케이션)사업본부는 지난해 영업손실 1조99억 원을 기록했다. 이른 시일에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미국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이 주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LG전자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 일본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5G 서비스를 시작하지만, 애플은 아직 5G 스마트폰을 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SK그룹 회장〉

최태원 “버텨보자는 태도 버리고 새로운 안전망 구축 계기 삼아야”

수펙스추구협의회 화상 진행
회사 자원·인프라 공유 확대
그룹사별 위기대응 강화 주문



로 제공한 것과 같이 고객·비즈니스 파트너는 물론 사회와 함께 회사가 보유한 자원과 인프라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이를 실행에 옮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를 완전히 새로운 안전망(Safety Net)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4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SK가 짜놓은 안전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잘 버텨보자는 식의 태도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씨줄과 날줄로 안전망을 짜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수펙스추구협의회는 SK그룹의 16개 주요 관계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하는 그룹 고유의 경영협의 기구다. 평소 최 회장은 참석 대상이 아니지만 이날 회의에는 후반부에 직접 참여해 특별 메시지를 전했다.

최 회장이 강조한 안전망과 관련해 SK그룹은 “경기지역 소재 연수원과 인천 SK무의연수원을 임시 생활시설

이날 회의에서 최 회장은 각 그룹사가 미증유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생존 조건을 확보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회장은 “시장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각 사는 스스로 생존을 위한 R&C(Resource&Capability·자원과 역량) 확보는 물론 투자자들에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얻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업무 특성상 현장을 지켜야 하는 구성원들이야말로 SK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 달라고 격려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포스코, 17개사 23개 제품 ‘이노빌트’ 선정

NI스틸과 첫 브랜드 사용협약

포스코는 국내 17개사 23개 제품을 프리미엄 강건재 브랜드 ‘이노빌트(INNOVILT)’ 인증 제품으로 선정하고 고객사와 브랜드 사용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포스코는 이날 건설자재 제작회사인 NI스틸과 첫 번째 이노빌트 브랜드 사용 협

약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정택 포스코 마케팅본부장, 배종민 NI스틸 대표이사(회장) 등이 참석해 이노빌트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이노빌트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 공동 마케팅과 기술협력을 지속하고, 고객사와 함께 이노빌트를 통해 강건재 시장 고도화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대한항공 전임원 급여 최대 50% 반납

재무구조 개선 자구책 추진

대한항공의 모든 임원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에 따라 급여를 반납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4월부터 부사장급 이상은 월 급여의 50%, 전무급은 40%, 상무급은

30%를 경영상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반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와 별도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 발표한 송현동 부지 등 유류자산 매각에 더해, 추가적 유류자산 매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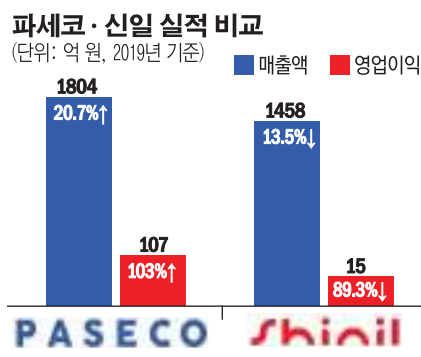
대한항공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및 실무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드는 등 전사적 대응체제를 구축해 사안별·시점별로 세부 대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 또 전사적 비용절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류 여객기의 화물칸을 이용해 항공화물을 수송하는 등 발상의 전환을 통한 영업활동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창문형 에어컨’ 히트 친 파세코 ‘60년 선풍기 명가’ 신일 제쳤다

파세코, 여름가전 완판 행진
작년 매출 전년 대비 20.7% ↑
영업이익도 103% ‘쑹쑹’

신일, 선풍기 매출 11.5% ↓
마케팅비 늘어 영업이익 ‘뚝’



지난해 폭염, 한파의 부재로 계절가전 기업들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창문형 에어컨’으로 히트한 파세코의 실적이 크게 성장했다. 반면 선풍기로 유명한 신일산업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내려앉아 ‘계절가전 명가’ 타이틀을 파세코에 뺏겼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파세코의 매출액은 1804억 원으로 2018년 대비 20.7% 늘어났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107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그간 파세코의 전통적 성수기는 겨울이었다. 석유스토브(난로) 등 겨울 가전 중심으로 내수와 수출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창문형 에어컨 등 여름 가전으로 제품군을 확대했고, 홈쇼핑 완판 행진을 이어가며 대박을 터트렸다. 2018년 대비 여름 기온이 높지 않은 가운데서도 계절가전 특수를 톡톡히 본 셈이다.

반면 선풍기 매출이 전체 매출의 70%를

넘는 신일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크게 줄었다. 지난해 신일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458억 원, 1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대비 각각 13.5%, 89.3% 줄어든 규모다. 신일의 역성장은 2015년 이후 5년 만이다.

신일의 지난해 3분기 선풍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5%, 일반 제품 판매는 약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일은 계절가전에서 종합가전 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주방가전, 가습기, 청소기 등 제품 라인업도 강화하고 있지만 2018년 기준 선풍기 매출액은 74%에 달한다. 신일은 선풍기 시장에서 자사의 점유율이 40%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일은 지난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비용이 늘어난 점도 영업이익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신일은 60주년을 맞아 지난해 CI를 교체했고, 브랜드 리뉴얼 작업을 해 새

캐릭터도 공개했다. 여기에 환율 상승도 매출 원가에 부담을 줬다.

파세코는 2016년에 2015년 대비 역성장하며 매출액 1020억 원을 기록했고, 2017년 1213억 원, 2018년엔 1495억 원을 기록했다. 최근 몇 년 새 매년 200억 원 내외로 매출액이 성장했으나 2016~2018년 각각 1245억 원, 1446억 원, 1687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신일보다는 외형 면에서 뒤떨어졌다. 그런데 지난해 신일의 부진과 ‘창문형 에어컨’의 히트가 맞물려 파세코는 신일을 올라섰다.

올해 61주년을 맞은 신일은 이달 30일 주주총회에서 기존 사명 신일산업주식회사를 ‘신일전자주식회사’로 변경하는 안건을 결의한다. 선풍기 기업으로 굳어진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종합가전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의지의 뜻이다. 다만, 브랜드명은 ‘신일’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신일은 올해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 철저한 생산, 판매, 재고 시스템으로 재고 관리와 원가 절감에 나서 수익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1인가구를 겨냥한 소형가전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소형가전을 선보일 계획이며, 밀레니얼(1980년대 초반~1990년대 후반 출생자) 세대를 공략해 SNS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신일은 밀레니얼 세대 공략 차원에서 온라인 유통 채널 확대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LG트윈스 연습경기 U+tv로 생중계”

LG유플러스는 ‘U+프로야구’와 ‘U+모바일tv’를 통해 LG트윈스 연습경기를 실시간 생중계한다. LG유플러스 모델이 ‘U+프로야구’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시범 신청 첫날 소상공인들 “숨통 좀 트이네요”

신용등급 4등급 이하 1000만원
25일 신청 전 5일 내 자금 실행

“이제서야 숨통이 좀 트이네요.”

25일 서울서부센터에서 대출을 신청한 A 씨의 말이다.

A 씨는 서울 구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 자금난을 겪다가 소액 직접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이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했다.

A 씨는 해당 센터로부터 이달 내로 자금이 실행된다는 얘기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이날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의 직접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대리대출 실행 소요일이 길어짐에 따른 긴급조치로 신용등급에 따른 지원 차등을 실시, 4등급 이하는 소진공에서 25일부터 직접대출의 형태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시범지원하고 있으며, 4월 1일부터는 본격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소진공 직접대출의 경우 전국 62개 소상공

공인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되므로 자금을 이용하는 내방객의 경우 단 1회의 방문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대구북부센터에서 직접대출을 신청한 B 씨는 “대기 시간이 길긴 했지만 기다린 보람이 있다”며,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라서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공단을 통해 이달 내로 집행된다 하니 급한 불은 꺼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날 접수를 마친 내방객은 5일 내로 자금 실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간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대리대출의 경우, 대출 거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 중기부와 소진공은 연체가 없고 세금 미납이 없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의 금리로 이르면 5일 이내 대출 실행이 가능한 소액 직접대출을 도입했다.

또한 소진공 직접대출의 코로나19 피해(2월 13일 이후)로 연체가 발생한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최대 1000만 원(특별재난지역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달 30일 방문 자부터는 사전상담시스템을 통한 사전 예약 후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최영희 기자 che@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로그인 OK

이제 본인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이 동통신 3사는 본인인증 앱 ‘패스(PASS)’ 기반의 휴대폰 번호 로그인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통 3사 공동 본인인증 브랜드 ‘패스’는 개인정보를 매년 입력해야 하는 본인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높은 보안 수준을 확보해 고객들이 안전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기반의 서비스다. ‘패스’ 휴대폰 번호 로그인 서비스 출시를 통해 고객 편의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사업군과의 제휴를 통해 서비스 생태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패스’ 휴대폰번호 로그인 서비스를 적용하기 원하는 회사와 단체는 개발자 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 API를 자사의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하거나 이통 3사와의 제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앞으로 ‘패스’와 제휴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별도의 ID와 비밀번호 입력 없이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화면에서 휴대폰 번호 로그인을 선택하면 ‘패스’ 앱이 자동으로 실행되

**이통3사 공동 본인인증 서비스 ‘패스’ 출시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높은 보안수준 확보
고객 맞춤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 제공 기대**

며, 생체인증(지문·홍채) 또는 여섯 자리의 핀(PIN)번호 인증 중 한 가지를 골라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다.

‘패스’ 휴대폰 번호 로그인 서비스는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등 소셜미디어 계정을 활용한 간편 로그인처럼 편리하며, 다종의 보안 시스템을 갖춰 사용자 로그인할 때마다 명의인증과 기기인

증을 수행하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로그인보다 보안성이 뛰어나다.

이통 3사는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과의 협업을 통해 휴대폰 번호 로그인 서비스를 구축했으며, 고객 스마트폰의 안전 영역에 정보를 저장하는 등 국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모바일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패스’ 제휴사들은 휴대폰 로그인 서비스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 각 제휴사는 고객에게 최초 1회 본인인증과 정보제공 동의를 받고, 이후 고객이 휴대폰 번호로 로그인할 때 고객의 본인인증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회사는 고객의 회원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안하는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패스’는 이번 휴대폰 번호 로그인 등 다양한 혁신 기능을 선보이며 ‘국민 인증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재훈 기자 yes@



한편 이날 엔씨소프트는 주총을 통해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조국현·최영주 사외이사 선임 안건, 이사보수한도 안건 등을 처리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김택진 엔씨 대표 “올 목표는 글로벌 공략”

리니지2M 등 신작 출시… 콘솔 게임시장 진출 포부

김택진(사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올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대표는 25일 엔씨소프트 R&D 센터에서 열린 주주총회에 참석해 “올해는 글로벌 시장 진출에 전사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리니지2M을 시작으로 신작 게임들로 더욱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콘솔 게임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글로벌 콘솔 게임 시장도 우리에게 새로운 무대가 될 것”이라며 “회사는 여러 개의 콘솔 게임을 준비 중이며, 새로운 장르의 게임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PC에

서 모바일로 더 나아가 콘솔까지 플랫폼을 확장하고 경계를 뛰어넘어 글로벌 종합 게임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포부도 덧붙였다.

KB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KB증권, 원화만으로 가능한 해외주식을 열다

GLOBAL ONE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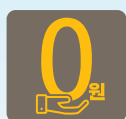
불편했던 해외주식을 국내주식처럼 쉽고 편하게!
원화 거래로 더 편해진 해외주식,
지금 글로벌 원마켓에서 만나세요



원화 거래로
편리하게!



당일 거래로
바로바로!



환전 수수료
평생 무료!

[글로벌 원마켓 서비스 신청 시]

*일부 통화 한정

*국민은행 실시간 매매기준율 환율적용

(외환시장 마감시 익일 환율적용)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9-00260호(2019년1월22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글로벌원마켓] *미국 주식수수료 온라인기준 0.25%
(매도시 0.0013% 제비용 별도) 일률적용합니다. *매체별, 금액별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도해지시 환전수수료 발생가능 *글로벌원마켓 가능국가: 미국, 홍콩, 중국A, 일본

 KB 증권

드라이브 스루서 다이닝 배달 서비스까지 호텔, 눈물겨운 ‘언택트’ 생존전략

호텔 음식을 레스토랑이 아닌 집에서 즐기고, 호텔에서 숙박한 뒤 조식은 뷔페가 아닌 룸 안에서 먹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두 달 넘게 이어지자 운영이 마비되다시피한 호텔업계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객실 영업을 중단하고, 식음 업장을 폐쇄하는 것에서 나아가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선보이며 고객 끌기 전략을 선보였다. 이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언택트(비대면) 전략을 앞세워 끊어진 소비자 발길을 되돌리려 애쓰고 있다.

롯데호텔에 이어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 레지던스도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서비스를 시작한다.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은 샐러드, 샌드위치, 초밥으로 구성된 콜드 디시와 꺾바로우, 갈비찜, 피시앤칩스 등이 담긴 핫디시 등 2종류의 케이 터링 박스인 ‘고메박스’를 선보인다. 고메박스 A는 3~4인용으로 3가지 메뉴를 선택할 수 있고, 고메박스 B는 6~8인용으로 총 5개의 메뉴 선택과 함께 프랜치 바게트가 함께 제공된다. 가격은 각각 10만9000원, 15만9000원이다. 사전예약 후 호텔 픽업 또는 서울 일부 지역에 한해 유료 배송 서비스도 가능하다.

앞서 롯데호텔은 업계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다이닝 박스를 선보였다. 롯데호텔서울의 일식당 모모야마와 베이커리 델리카한스는 온라인 또는 우선 주문 후 결제 완료 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픽업할 수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음식 DT 서비스’ JW 메리어트 동대문, 인근 고객에 배달 신라호텔 등 조식·디너 룸서비스로 제공

있는 ‘시그니처 박스’를 다음 달 30일까지 판매한다.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캐어 서울의 레스토랑 ‘타볼로 24’도 지난달부터 코로나19로 외식을 꺼리는 소비자를 겨냥해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JW 다이닝 투 고’는 배달의민족 ‘배민라이더스’와 손잡고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캐어 서울 호텔 기준 반경 3km 이내 거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배달 비용은 2900원이다.

호텔 레스토랑뿐 아니라 숙박시설도 언택트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숙박 후 호텔 뷔페에서 조식을 먹는 대신 룸으로 직접 조식을 배달해 주는 식이다.

서울 신라호텔은 룸서비스로 아침 또는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모닝 딜라이트’와

‘인 룸 딜라이트’를 각각 선보였다. 아침 식사로는 아메리칸 브렉퍼스트가 준비된다. 크루아상과 베이컨, 달걀 요리, 이탈리아 프리미엄 커피 ‘코바(COVA)’ 커피가 포함돼 있다. 디너 세트는 애피타이저 1종과 메인 메뉴 2종, 레드와인 1병으로 구성된다. 애피타이저는 시저 샐러드, 그린 샐러드 중에 선택할 수 있고 메인 메뉴도 해산물 스파게티, 메로구이, 안심 스테이크 등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는 객실에서 룸서비스로 조식을 즐길 수 있는 ‘룸콕 패키지’를 선보였다. 조식은 오믈렛과 토스트, 전복죽, 미역국 중 취향에 따라 메인 메뉴를 선택할 수 있고, 커피와 요거트는 기본으로 제공된다.

서울 드래곤시티의 로비 라운지 & 바 ‘메가 바이트’는 호텔 셰프가 만든 치킨을 객실에서 전화 주문하면 픽업 후 바로 객실에서 즐기는 ‘메가 치맥 박스’를 선보인다. 메가 치맥 박스는 프라이드치킨과 생맥주(375ml) 2잔을 2만2000원에 판매한다.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의 비스타 워커힐 서울과 더글라스 하우스에서도 언택트 룸 패키지를 선보인다. 비스타 워커힐의 ‘베드 앤 잇 인(Bed & Eat In)’ 패키지는 조식을 객실에서 즐길 수 있고, 더글라스 하우스의 ‘연두빛 봄 1’ 패키지는 해산물 꼬치 구이와 신선한 그린 샐러드 룸서비스로, ‘연두빛 봄2’ 패키지는 피자할 콤비네이션 테이크아웃 피자를 제공한다.

박미선 기자 only@

장바구니 부담 던다... 유통가, 생필품 할인전

대형마트 3사 식재료 할인 CU, 50여 종 알뜰 장보기 집콕족 증가에 가계 부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집콕족이 늘면서 생필품과 식재료 수요가 늘자 유통업체가 먹거리와 생필품을 대상으로 대규모 할인에 나선다.

이마트는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3주간 대대적인 생필품 할인 행사를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대표품목은 10년 전 가격의 590원 참굴비를 비롯한 ‘국민가격’, 횡성 한우 30%·토종닭 20% 할인 등 ‘일별 서프라이즈’, 주방세제·오랄비 칫솔 전품목 1+1 등 ‘목요일 4일간 특가’ 등이다.

이마트가 4월에 대대적인 생필품 행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집콕족’ 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생필품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 가계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실제, 이마트는 지난 한 달여간(2월 19일~3월 23일) 주요 생필품 매출을 살펴보면 한우정육 9.5%, 쌀 28.9%, 계란 33.5%, 조미료 18.9%가량 수요가 증가했다.

먼저 ‘국민가격’ 행사는 신선식품의 경우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1주일간 진행되며, 비신선 상품은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 달 내내 이어진다. 우선 신선식품은 ‘10년 전 전당가격’에 도전한다는 타이틀로 ‘밥도둑’ 국산 참굴비를 1마리당 590원(55g 내외)에 판매한다.

비신선 국민가격 상품은 ‘퍼실 하이진’ 세탁세제를 60%가량 할인해 8900원(2.7L, 일반·드림용 각각)에 판매하고,



25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생필품 할인 행사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는 내달 15일까지 대대적인 생필품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2080 진지발리스’ 치약은 3입짜리 상품을 5900원에 ‘1+1’으로 내놓는다.

롯데마트도 26일부터 일주일간 ‘힘내자 대한민국’ 테마의 행사를 진행한다. 생활에 힘이 되도록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춘 ‘직경매 1등급 한우 전 품목’ 최대 50% 할인을 진행한다. 또한, 계속되는 개학 연기로 인해 급식 공급이 어려워져 힘든 농가를 돕기 위해 ‘충청남도 친환경 농산물 기획전’도 진행한다.

홈플러스도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전국 점포와 온라인몰에서 ‘국민 응원 기획전’을 열고, 신선식품에서부터 생활용품, 가전에 이르기까지 전 카테고리에 걸쳐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낮춘다. 우선 ‘4월 개학’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급식용 식재료 납품 농가를 돕고,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

리를 쟁기는 부모들을 위해 평소 2~6배 물량의 친환경 농산물을 매입해 저렴하게 내놓는다.

유기농 쌀(10kg/포)은 100톤 물량을 준비해 3만2900원에 판매하며, 무농약 완숙토마토(750g/팩)와 토마토(500g/봉)는 각각 8톤, 5톤 물량을 마련해 5990원, 4990원에 판매한다.

편의점 CU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편의점에서 장을 보는 고객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내달 말까지 ‘알뜰장보기 프로모션’을 연다. 행사 상품은 50여 종으로 베이커리류와 과일류는 가격을 시중 판매가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판매한다. 먹거리 외에도 화장지, 세제 등도 50% 할인하거나 증정 행사를 한다.

남주현 기자 jooh@

이마트, 전기차 충전사업 진출

시장 확대 선제 대응... 체험·체류형 점포 소비자 이끌어

이마트가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직접 뛰어든다. 확대되는 전기차 시장에 발맞춰 충전 시설을 강화해 고객의 발걸음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이마트는 25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에 ‘전기차충전사업을 포함한 전기 신사업 및 전기사업’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현재 점포 주차장에 임대 사업 형태의 전기차 충전소가 있지만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충전소 사업에 나선다”면서 “전기차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면서 고객 편의 측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현재 전국 115개 점포의 주차장에서 급속충전기 330대와 완속충전기 147기 등 총 477기의 전기차 충전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장소를 임대해 충전 사업자가 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이마트가 그간 직접 사업에 나서지 못한 이유는 정부가 지정한 소수 업체만 충전 시설 사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충전 인프라를 늘리면서 업체를 지정해 왔다. 작년 말 기준 충전 사업자는 에스트라픽과 지엔텔, 포스코CT, 매니온 등 총 13개 업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변경되기로 하면서 이마트에 사업 기회가 왔다.

이마트가 전기차 관련 사업에 눈을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업체는 세미시스코의 ‘D2’와 르노의 ‘트위지’ 등 초소형 전기차를 일찌감치 이마트나 일렉트로마트 등에서 팔아왔다. 관계사인 하남 스타필드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전기차 ‘테슬라’ 매장을 선보이기도 했다.

2018년에는 집합형 초급속 전기차 충전소인 ‘일렉트로 하이퍼 차저스테이션’을 마련해 현재 총 32개 점포 주차장에서 260기를 도입해 운영 중이



이마트 전기차 충전소 강릉점 모습.

다. 여기에 현재는 서울권 약 3곳의 매장에서 포르쉐의 전기차 ‘타이칸’ 전용 초급속 충전기 설치를 공사 중이다.

이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제공을 통해 체험형·체류형 점포로 거듭나 소비자의 발길을 끌어들이겠다는 이마트의 전략과도 맞아떨어진다. 전기차 충전은 급속 충전기 기준 완충까지 대략 1시간 내외가 소요되는 만큼 고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려 구매로 이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아파트 등 거주지에 비해 충전 시설 확충이 용이한 만큼 차주를 소비자로 끌어들이 수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이 포함된 전기동력차 판매는 전년 대비 14.6% 늘어난 14만3000대를 기록했다.

동시에 배송 경쟁력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 이마트는 지난해 10월 현대글로비스와 ‘친환경 냉장 전기차 배송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SSG닷컴은 현재 운행 중인 이마트물 배송차량 일부를 친환경 전기차로 사범 전환할 예정이고, 현대글로비스는 냉장 전기차량 공급과 배송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냉장 및 냉동 기능을 탑재한 전기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내 최초로, 올 상반기 내 전기 배송차량의 안정성, 주행능력 등 테스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온라인 물류센터 ‘네오 003’부터 전기 배송차를 점진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남주현 기자 jooh@

갤러리아백 ‘고메이494한남’ 27일 오픈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갤러리아백화점이 27일 서울 한남동에 새로운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고메이494 한남’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91)을 오픈한다고 25일 밝혔다.

‘고메이 494 한남’은 기존 ‘고메이 494’의 미식(Fine Dining)에 △화제성 있는 F&B 브랜드 및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한남동의 지역적 특성과 고급 주거 환경에 맞는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VIP 시설인 ‘매종 갤러리아’ 등 고품격 라이프스타일 콘텐츠가 결합된 ‘파인 리빙(Fine Living)’이라는 콘셉트의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다.

고메이494 한남은 2개 층에 총 4개 존으로 선보인다. 지하 1층은 국내외에서 화제성 있는 브랜드로 구성된 ‘어트렉션존’과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로 구성된 ‘라이프스타일존’이다. 그리고 지하 2층은 식품관 고메이494를 선보이는 ‘마켓존’과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과 VIP 라운지로 구성된 ‘프리미엄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메이494 한남’은 각 존마다 화제성 있는 F&B 브랜드를 선보이고 있다. F&B 빅 브랜드로는 지하 1층 어트렉션존에



△미국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인 ‘블루보틀’ △청담동 브랜치 전문 카페로 유명한 ‘앤더스씨’ 등을 입점시켰다.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으로는 △스시 오마카세 전문점 ‘스시노야야’ △프렌치 감성의 중식당 ‘피에세’ 등을 선보이고 식품관 고메이494의 캐주얼 다이닝에서는 △맘맘 △미상 등이 입점해 ‘맛 집 집결지’ 명성을 이어간다.

또한, 라이프스타일 입점 브랜드로는 △국내 최초의 프랑스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 ‘드비알레’ 플래그십 스토어 △하이엔드 오디오 청음시설과 바가 결합된 ‘리스닝룸 by ODE’ 등을 선보인다.

갤러리아 관계자는 “‘고메이 494 한남’은 국내 최고급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코로나 치료제 찾아라” 국내외 제약사, 임상 속도전

식약처, 칼레트라·옥시크로린 등 약물 임상시험 4건 승인
中,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 임상 결과 임박 기대감 높여
국내선 셀트리온 “항체 후보군 확보… 7월 인체 투여 추진”

전 세계로 확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잠재울 치료제를 내놓기 위해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들이 개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상 진행이 가장 빠른 ‘렘데시비르’가 초기 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독자적인 기술을 활용해 조기 임상 진입을 시도 중이다.

◇ 주목받는 칼레트라·하이드록시클로로퀸 = 25일 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은 총 4건이다. 식약처는 20일 서울아산병원이 제출한 ‘칼레트라’(성분명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와 ‘옥시크로린’(성분명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연구자 임상을 승인했다. 이번 임상은 성인인 경증 코로나19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칼레트라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각각 투여해 효능을 확인한다.

칼레트라는 다국적 제약사 애브비가 개발한 에이즈(HIV) 치료제다. 2000년 미국 식품의약품(FDA) 허가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일부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에 사용됐다. 애브비는 2026년에 만료되는 칼레트라의 특허권을 포기해 전 세계에서 제네릭(복제약)을 발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독일의바이엘이 1934년 말라리아 예방·치료제로 개발한 클로로퀸 계열 약물이다. 특허가 만료돼 옥시크로린 등 다양한 복제약이 나왔다.

정부는칼레트라와하이드록시클로로퀸 임상을 직접 지원한다. 다만 칼레트라는 최근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중국의 빈카오 국립임상연구센터 연구팀은 중증 코로나19로 입원한 성인 199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한 결과, 유의미한 이점을 관찰하지 못했다고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심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더욱 쏠린다. 프랑스 연구진은 17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환자에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투여해 대조군 대비 유의미한 바이러스 감소 효과를 얻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구하기 쉬워 국내 임상 결과가 주목된다.

◇ 렘데시비르 임상 결과 발표 초읽기 = 식약처가 가장 먼저 승인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은 미국의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개발한 렘데시비르다. 코로나19 치료제로 상업화를 위한 2건의 임상 3상 시험이 2일 승인

됐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원하고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주도하는 다국가 연구자 임상도 5일 승인받았다.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가 초기 중국에서 유행할 때부터 주요 치료제 후보로 떠오른 약물이다. 국내보다 먼저 중국에서 시작된 임상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4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임상의 초기 결과 역시 4월에 확인 가능할 전망이다.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임상시험 외에 긴급치료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일본 도야마화학공업의 신종플루 치료제 ‘아비간’, 미국 리제네론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케브라자’, 스위스 로슈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악템라’ 등이 코로나19 치료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아직 렘데시비르만큼 대규모 임상 3상이 진행되지 않아 렘데시비르의 임상 결과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도 치료제 개발 활발 = 국내에서는 셀트리온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2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항체 개발에 가장 중요한 항체 후보군을 확보했다”면서 “빠르면 7월 중순까지 인체 임상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선언했다.

셀트리온은 서울대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해 코로나19 회복 환자의 혈액을 확보해 항체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중화능 검증법 등을 통해 최종 항체를 선정하고 5월 초 대량생산 세포주를 개발할 계획이다.

부광약품은 B형간염 바이러스 치료제로 발매한 항바이러스제 ‘레보비르’의 시험관 내 시험에서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확인하고 임상을 추진하고 있다.

셀리버리는 중증폐렴증 치료제 ‘iCP-NI’의 한국과 미국 임상을 동시에 추진한다. iCP-NI는 20종 이상의 염증성 싸이토카인을 제어해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하는 기전이다.

사이토카인 폭풍이란 인체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면역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분비돼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현상으로, 사이토카인 폭풍에 초점을 맞춰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기업은 셀리버리 외에도 엔지켐생명과학, 노바셀테크놀로지, SCM생명과학 등이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오후 5시에 제공하는 **5** 유령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TV에 게재됐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 현황							국내 기업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			※ 출처: 각 사
약물	의뢰자	대상 환자	임상 단계	규모	승인일	특징	회사	약물	현황	
렘데시비르	길리어드	중증	3상	120명	3월 2일	에볼라 치료용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개발	7월 임상 준비 완료	
	길리어드	중등도	3상	75명	3월 2일		GC녹십자	항체 치료제 발굴	국책과제 지원	
	서울대병원	성인	2상(연구자)	100명	3월 5일		부광약품	항바이러스제 ‘레보비르’	식약처 임상 추진	
칼레트라	서울아산병원	경증	연구자 임상	150명	3월 20일	HIV 치료제 말라리아 치료제	노바셀테크놀로지	면역치료제 ‘NCP112’	CRO와 공동 개발	
옥시크로린							테라젠이텍스	후보물질 발굴	식약처 임상 추진	
※ 칼레트라: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옥시크로린: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셀리버리	중증폐렴증 치료제 ‘iCP-NI’	식약처·FDA 임상 추진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엔지켐생명과학	신약물질 EC-18	FDA 임상 추진	
							SCM생명과학	줄기세포치료제 ‘SCM-AGH’	인하대병원과 임상 협력	
							아운메드	항바이러스제 ‘HzVSFv13주’	식약처 치료목적 사용 승인	

줄기세포 치료 급부상… 의료계 “안전성 우려”

中서 중간엽 줄기세포 이용 환자 치료… 국내서도 사용승인 요청 잇따라

줄기세포가 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 대안이 될지에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중간엽 줄기세포(MSC)를 이용한 치료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중환자가 회복했다는 소식들이 알려지면서 국내의 관심도 뜨겁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중간엽 줄기세포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과 면역조절 기능 및 손상된 조직과 기관을 재생·복구하는 데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수정란이 분열해 생긴 중배엽에서 분화된 연골·골조직·지방조직·골수 기질 등에 존재하는 것으로 B세포·NK세포·T세포 등 선천적 면역뿐만 아니라 후천적 면역세포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면역력을 크게 높이기도 한다.

이 같은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한 면역조절(immune-modulation) 기능을 바탕으로 중국에선 2건의 코로나19 치료 효과 소식을 밝혔다.

쿤밍대 연구팀의 중환자실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65세 여성의 호전 소식과 상하이 대학의 임상에서 7명 환자가 모두 회복했다는 연구 결과가 그것이다. 이 결과는 외부 침투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 면역물질인 사이토카인을 과다하게 분비해 폐와 장기들을 손상시키는 즉 ‘사이토카인 폭풍(cytokine storm)’ 질주를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 억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국내에서도 조속한 줄기세포 치료제 허가에 대한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며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현재 국내 일부 줄기세포 기업들은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임상시험 계획 및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등을 식약처에 신청한 상태다. 코로나19 치료 목적 사용승인을 요청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있는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후베이/AP연합뉴스

기업들은 △강스텝바이오텍, 류머티즘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퓨어스템 RA 주’ △안트로젠, 크론병 치료제 ‘ALLO-ASC-CD’ 등이며 메디포스트가 기관지폐이형성증 치료제 ‘뉴모스템’에 대한 치료 사용에 대한 내부 검토에 돌입했으며, SCM생명과학이 인하대병원과 동결형 줄기세포 치료제 ‘SCM-AGH’에 대한 치료목적 임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네이처셀 관계사인 알바이오는 ‘아스트로스템-V’의 국내 1/2a 임상시험 계획을 식약처에 제출했으며, 네이처셀은 미국 식품의약품(FDA)에 임상시험 승인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내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중증환자들을 위한 줄기세포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 박상욱 박사는 “줄기세포는 정맥 투여시 폐를 포함한 전신의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을 조절하는 특성이 발현되기도 하지만 원치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특성도 존재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동욱 한국줄기세포학회회장(연세대학교 의대 생리학교실 교수)도 “코로나19 폐렴 환자 대상 줄기세포 투여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사용이 되더라도 다른 치료법이 없어 곧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해당되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경우 식약처의 응급임상시험 허가를 획득한 안전성이 확보된 줄기세포 사용을 전제로 환자 가족으로부터 위험성에 대한 동의를 받아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줄기세포 사용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가 진행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줄기세포 기업들의 코로나19 치료 목적 사용승인 요청건에 대해서 어떠한 검토나 논의가 진행된 바가 없다”라며 “승인이 되더라도 치료제 사용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이 의논되어야 하기에 아직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 단계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수젠텍,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수출허가 획득

美FDA 긴급사용승인 신청 계획

수젠텍은 코로나19 항체 신속진단키트가 한국 식약처의 수출허가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수젠텍의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 ‘SGTi-flex COVID-19 IgG/IgM’는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과 필리핀, 태국 등 아시아지역 총 6개국에 수출이 확정돼 1차 양산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항체 신속 진단키트로 유럽 CE 인증과 식약처 수출허가를 받은 제품은 수젠텍을 포함 2개사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생산된 진단키트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국 식약처의 수출 허가와 판매 국가에서의 인허가가 필수다. 수젠텍은 이



미 유럽 CE인증을 완료한 상태로 유럽 CE인증은 유럽,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된다.

손미진 대표이사는 “미국에서도 공급요청이 많아 향후 미국 식품의약품(FDA)의 긴급사용승인(EUA)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종근당 프리락토, 장 건강·면역력 증진 도와

최근 장내 세균이 장 건강과 면역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체내에 들어가서 건강에 이로운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으로, 전문가들은 균주와 제형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복용할 것을 권한다.

종근당의프로바이오틱스건강기능식품 ‘프리락토’ 4종은 소비자가 자신에게 알맞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균주와 제형을 다양화한 맞춤형 제품이다.

‘프리락토 프리미엄 장용캡슐’과 ‘프리락토 베베’는 장내에 다양한 유산균이 보급되도록 국내 최다인 19종의 유산균을 함

유한 제품이다.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넣은 신바이오틱스 제품으로 유산균 증식과 배변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프리락토 프리미엄 장용캡슐은 장까지 살아가 수 있는 장용성 캡슐을 적용해 위산 및 담즙산에 취약한 프로바이오틱스의 단점을 보완했다. 프리락토 베베는 씹어먹을 수 있는 츄어블정 타입의 제형으로 아이들이 재미있게 복용할 수 있다.

분말 형태의 ‘프리락토’와 ‘프리락토 키즈’는 소비자의 연령대에 따라 적합한 유산균을 이상적으로 배합한 제품이다.

프리락토는 성인용 제품으로 면역과 항균물질 형성, 장내 세균 구성 정상화, 유해



균 생성 억제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락토바실러스균을 강화했다. 프리락토 키즈는 생후 3개월부터 12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제품으로 질병 예방과 면역체계 형성을 위해 모유에 함유된 비피더스균 4종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프리락토 4종은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힌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라며 “장 건강과 면역력이 약화된 현대인들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널뛰기에 투기 판치는 시장... “승자는 없었다”

신용융자 ‘저점 매수’ 나선 개미
레버리지 펀드 한달 새 4兆 유입
지수 급락에 평균 수익률 -43%
인버스 상품은 설정액 크게 줄어

팬데믹 공포로 널뛰기 장세가 이어지며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기성 상품에 자금이 몰렸다. 한달 간 레버리지 펀드에 약 4조 원이 유입됐지만 처참한 수익률을 기록해 건전성 우려도 커졌다.

25일 한국펀드평가 펀드스퀘어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전날 종가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인덱스펀드에 3조6137억 원이 신규 유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835억 원)과 비교하면 20배 가까이 늘어난 수

펀드명	수익률(%)
미래에셋TIGER200에너지화학레버리지증권ETF(주식-파생)	-66.60
미래에셋TIGER200IT레버리지증권ETF(주식-파생)	-57.45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주식-파생재간접)C-A	-57.29
키움KOSF200선물레버리지증권ETF(주식-파생)	-55.05
한화ARIRANG200선물레버리지증권ETF(주식-파생)	-54.82
미래에셋TIGER200선물레버리지증권ETF(주식-파생)	-54.82
KBKBSTAR200선물레버리지증권ETF(주식-파생)	-54.76

출처: 펀드스퀘어

치다. 인덱스펀드 전체 설정액(40조 9956억 원) 중 레버리지만 20% 이상(8조2881억 원)을 차지했다.

레버리지는 지수가 오르면 상승률의 두 배 수익이 나지만 하락할 경우 두 배의 손실이 나는 상품이다. 성장 가치나

실적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수의 상승에 베팅한다는 점에서 단기 투기성 성격을 가진다.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현재 지수를 바탕으로 판단한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펀드에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팬데믹 사태로 국내 증시가 급락했지만 신용베팅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특히 신용융자를 통한 레버리지 거래가 크게 늘었는데 과거의 폭락 경험을 살린 개인투자자들이 학습을 통해 저점 매수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레버리지 펀드는 평균 -43.38% 수익률을 기록해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66.60% 손실을 본 상품도 있었다. 한 달간 코스피지수가 22.56% 급락한 영향이다. ‘KB코리안버스2배레버리지(주식-파생재간접)C’, ‘NH-Amundi코리아2배인버스레버리지(주식-파생재간접)C’ 두 상품을 제외하고 모두 손실을 봤다. 상품별로는 미래에셋TIGER200에너지화학레버리지증권ETF(주식-파생)’는 -66.60%로 가장 저조했

다. 이어 미래에셋TIGER200IT레버리지증권ETF(주식-파생)’(-57.45%),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주식-파생재간접)C-A’(-55.05%), 키움KOSF200선물레버리지증권ETF(주식-파생)’(-54.82%) 순으로 수익률이 낮았다.

반면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은 평균 53.96%로 양호한 수익을 거뒀다. 다만 전체 설정액은 같은 기간 8998억 원 감소해 총 1조9148억 원을 기록했다. 레버리지의 25% 수준이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 중국 외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며 “그러나 대규모 부양책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증권사 목표주가 낮춰도 매도 의견은 ‘0’

코로나發 증시 불안 장기화 우려
삼성전자 1년 만에 목표가 하향
주목 받던 LG화학도 대폭 내려
“상승 여력 있다” 매도보다 보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증시 불안이 계속되면서 국내 증권사들이 기업들 목표주가를 연이어 낮추고 있다. 이달 발표한 종목보고서 절반이 종전보다 낮은 목표주가를 제시한 상황이다.

2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24일 기준 개별기업 목표주가를 제시한 국내 증권사의 투자보고서는 총 436건이다.

이 중 목표주가를 종전보다 내린 보고서는 221건으로 전체의 50.68%를 차지했다. 1월 16.79%(180건)에 불과했던 하향 보고서 비중이 2월 26.7%(422건)로 급증하더니, 이달 들어 과반을 넘어선 셈이다.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종목들도 목표가 하향을 피하지 못했다.

16일 하나금융투자는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에 대해 목표가를 기존 6만 7000원에서 6만3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증권사가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낮춘 건 지난해 3월 18일 미래에셋대우 이후 1년 만이다. 이후 키움증권, KB증권 등 5개 증권사가 돌아가며 삼성전자 목표가를 낮췄다.

2020년 2월 1일~29일			2020년 3월 1일~24일	
적정주가구분	리포트수	비중	리포트수	비중
상향	247개	15.63%	35개	8.03%
하향	422개	26.71%	221개	50.69%
유지	911개	57.66%	180개	41.28%
전체	1580개	100%	436개	100%

※종목보고서(삭제, 요약, 영문 제외)
※출처: 에프엔가이드

노근창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고가 스마트폰은 온라인 쇼핑보다는 직접 매장에서 구매하는 수요가 크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무선(IM) 부문 실적은 2분기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버 수요 증가에도 완제품과 모바일 반도체의 수요 감소를 감안해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대비 각각 5.6%, 14.3% 낮춘 246조 원과 37조 원으로 바꾼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기차 산업에 대한 장밋빛 기대감과 함께 주목받던 LG화학은 최근 목표가가 급격히 내려가고 있다. 17일 미래에셋대우가 처음 목표가를 50만 원으로 낮추더니, 삼성증권은 목표가를 기존 52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대폭 내렸다. 이달 중순 전까지 상향 보고서가 줄었던 상황과 대조적이다.

조현렬 삼성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전기차 선도업체인 테슬라도 2월 고점 대비 주가가 59% 하락해 전기차 관련주의 가치 프리미엄이 소멸했다”며 “LG화학은 코로

나19 확산에 따른 폴란드 공장 생산 차질 우려와 순차입금 증가에 따른 크레딧 리스크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포스코, 신한지주 등 국내 시가총액 상위 열 손가락에 꼽히는 기업들에 대한 목표가 하향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다.

반면 투자 의견을 종전보다 하향한 보고서는 이달 4건으로 전체의 0.9%에 불과했다. 같은 달 목표가 하향 비중과는 큰 차이다. 게다가 ‘매도’ 의견은 이달 아직 없는 데다가 ‘중립’ 의견도 22건에 불과해 전체의 4.5%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내 상장사들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기존 목표가와 격차가 크게 벌어져 갭을 메우는 상황”이라며 “투자 의견은 기초여건(펀더멘털)의 큰 악재가 없다면 낮아진 주가만큼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상대적으로 하향 조정이 적다”고 말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단기차입금 대폭 줄어... 자금 ‘여유’

상장사 재무 분석

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가 지난해 장기차입금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기가 짧은 유동부채는 줄이면서 자금운용 능력을 키웠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헬릭스미스의 지난해 장기차입금은 6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배 증가했다.

장기차입금 대부분은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같은 금융권 자금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받은 정부보조금 등으로 이뤄져 있다. 장기차입금 증가 속에 전체 비유동부채 역시 1310억 원을 기록, 30.78%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단기차입금은 ‘제로’다. 2018년 50억 원가량 있었지만 이마저도 모두 떨어졌다. 그 밖에 유동성전환사채와 매입채무, 파생금융부채 등 단기물이 모두 감소했고, 만기 1년 이내의 총 유동부채는 10.1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채에서 단기물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과거 31.53%에서 24.03%으로 낮아졌다. 만기가 임박한 부채의 규모를 줄임으로써 자금 운용에서 한층 여유를 갖게 됐다.

헬릭스미스는 2017년까지만 해도 전환사채와 파생금융부채, 단기차입금 등 회계상 부채로 계상될 만한 자금 조달이 거의

헬릭스미스 재무현황

(단위: 억 원, 2019년 잠정치)

	2016	2017	2018	2019
장기차입금	43	112	176	605
단기차입금	3.9	1.7	51	0
비유동부채	63	135	1001	1310
유동부채	8	15	461	414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작년 금융권서 정부보조금

장기차입금 605억으로 급증

없었지만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

자본의 경우 4000억 원대의 자본잉여금 덕분에 전년 대비 44.26% 증가한 1991억 원을 기록했다. 그 결과 세 자릿수이던 부채비율은 86.59%까지 낮아졌다. 다만 2016년부터 4년간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같은 기간 결손금은 3배 가까이 불어났다. 지난해 헬릭스미스의 결손금은 2203억 원이다. 자본잉여금이 결손금보다 더 큰 탓에 전체 자본 규모가 감소하진 않았지만, 결손금이 계속 남아 있는 이상 자본 증식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해 헬릭스미스의 연결기준 영업손실은 전년 대비 80.4% 불어난 383억 원, 당기순손실은 317% 불어난 1273억 원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엔 임상3상 실패 소식도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등의 어려움도 있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대신증권, 22년 연속 현금배당... “주주가치 제고 노력”

대신증권이 22년 연속 현금배당을 실시한다. 주가 하락에 대해 주주보상 차원에서 배당금을 증액하는 등 주주 중심 경영을 펼치고 있다.

대신증권은 20일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2019 회계연도 결산배당금으로 보통주 1주당 1000원, 우선주 1050원, 2우B 1000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8.1%, 우선주 11.1%, 2우B 11.4%이다.

대신증권은 오랜 기간 주주 중심 경영을 해오고 있다. 업계 최고 수준의 배당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다. 대신증권이 IMF 이후 실시한 현금 배당금 규모만 1조

원이 넘는다. 업계에선 세 번째로 큰 규모로, 배당성향으로 보면 타 대형사를 능가한다.

대신증권은 또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 안정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2002년 이후 17번에 걸쳐 진행됐다. 작년 2차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 안정화에도 기여했다. 실제 2019년 코스피 증권업종 지수가 3.82% 상승한 것에 비해 대신증권의 주가는 5.28% 올라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매입한 자사주는 ESOP(우리사주신탁제도)를 통한 장기보유를 통해 임직원들의 경영성과 향상과 장기 근로의식 고취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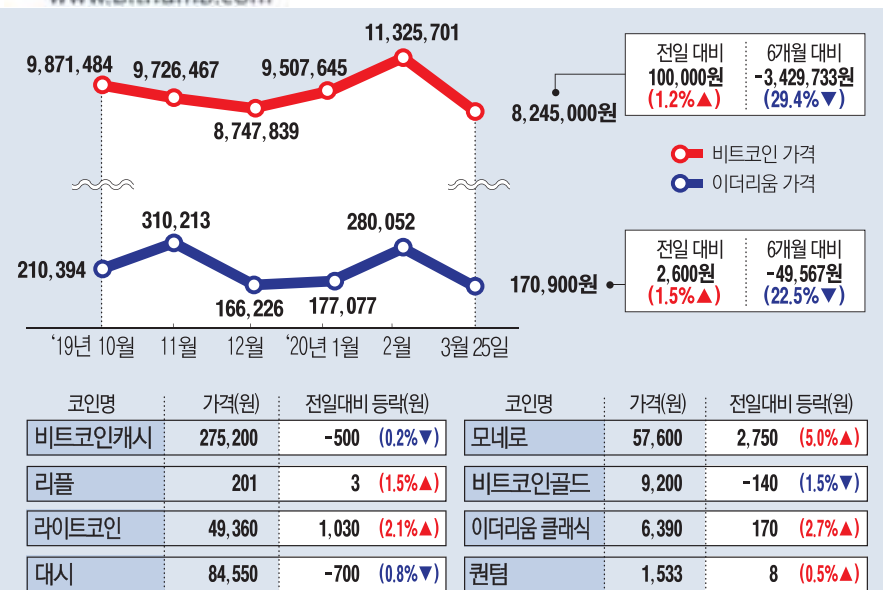
대신증권은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도 평가받는다. 2019년 서스틴베스트의 지속가능경영 평가에서 32개 금융투자 업계 평가 기업 중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는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자본확충이 필수적인 만큼, 자본확충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회사가 성장해 주주가치가 제고되는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 가겠다”며 “일상적인 경영환경하에서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 30~40% 수준의 배당성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20년 3월 25일 17:00, KST)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Powered by Innovation

전세계 어디서든

장비의 위치와 상태, 가동 현황을 파악해

관리와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DoosanCONNECT™의 스마트 기술로
더 큰 미래를 열어갑니다

인프라에 스마트를 더하다

두산인프라코어



장비위치정보
강원도 삼척



소모품 교체 알림
엔진오일필터 (3일)



평균 연비
21.8 L/hr (지역 평균 24.3 L/hr)



*DoosanCONNECT™
고객-장비-본사 직원 간의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두산인프라코어의 기술입니다

www.doosaninfracore.com

〈가로세로연구소〉

“최태원 관련 가세연 폭로는 허위”

재판부 “객관적 근거 없이 최회장의 사회적 평판 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생활 등과 관련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폭로는 모두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한경환 부장판사)는 전날 최 회장이 강용석 변호사 등 가세연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가세연이 심문 종결일(1월 22일) 이후 최 회장 관련 내용이 담긴 동영상은 비공개 처리하면서 주된 심리 대상(삭제)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최 회장이 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라텍스 베개 10만 개를 기부했다”고 했다. 또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생활비와 주택관리비를 전혀 주지

않았고, 최 회장이 현재 동거 중인 김희영 티앤씨(T&C) 재단 이사장이 아닌 제3의 내연녀와 교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가세연이 방송을 통해 언급한 최 회장 관련 의혹 세 가지가 전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텍스 베개’와 ‘제3의 내연녀’ 의혹에 대해 “가세연은 이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해 구체적·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관장 생활비 미지급’ 의혹은 “최 회장이 제출한 자료에 비춰볼 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게시물로 인해 최 회장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됐고, 그로 인해 최 회장의 사회적 평판이 침해됐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 변호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김세의 대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정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막연히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얻은 정보라는 취지로 이를 인용하고 있다”며 “해당 표현 내용이 마치 진실인 것 같은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가세연이 해당 동영상을 재차 게시하거나 유포할 경우 비공개 상태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선택한 사용자’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될 때는 최 회장 측이 해당 영상의 삭제나 표현 내용의 게시 및 유포금지를 구할 수 있음을 덧붙여 둔다”고 밝혔다.

김중용 기자 deep@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iak@

檢 “n번방 단순 참여자도 처벌”

검사 등 21명 투입 TF 구성

검찰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전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긴급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단순 참여자까지 처벌하기로 했다. 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 주재로 전국 여조부장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전날 오후 구본선 차장 주재로 ‘성착취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조정부장, 반부패 강력부장, 형사부장, 과학수사부장, 인권부장, 국제협력단장, 서울중앙지검 여조부장 등이 참석했다.

윤 총장은 “이번 사건과 같은 인권유린 범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반문명적, 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 개설 운영자, 적극 가담자는 물론 단순 참여자까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접수돼 처리했거나 수사, 공판 중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사건을 분석하는 등 최근 이뤄진 유사 사건 처분을 전면 재검토하고 다각적인 법적 검토를 통해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신속하게 수립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n번방’ 사건 대처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디지털성범죄수사TF는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총괄하며 △여성범죄아동조사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4개 부서에서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21명이 합류한다. 지휘는 김옥준 4차장 검사 맡는다.

디지털성범죄수사TF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포함해 관련 사안을 전반적으로 수사한다. 세부적으로는 △사건수사팀(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수사지원팀(경찰 수사지원 및 법리검토) △재발방지팀(범죄수익환수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으로 구성돼 사건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로 모든 관련자를 적법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성 착취 불법 영상물 확산 방지와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대법 “세금 안내고 버틴 日 기업 소멸시효 중단”

재판상 청구 예외적 인정

가능한 모든 조치를 했으나 조세징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소멸시효 기간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도 예외적으로 시효중단 사유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부가 일본법인 A 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채권 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용인세무서는 2011년 A 사에 2006~2007년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각각 136억 원, 87억 원을 부과했다. 용인세무서는 독촉장 발송, 일본 방문, 납

부최고장 발송 등 조치를 했지만 A사는 국내에 재산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

납세고지 기준 5년의 소멸시효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용인세무서는 2015년 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기준 채납액은 331억 원에 달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 최고, 교부청구, 압류’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가 조세 채권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

나 소재 불명이어서 압류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를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의 재산이 외국에는 있으나 국내에는 없어 압류 등 조치를 하지 못했다”며 “징수위탁을 위한 상호 합의 등의 노력에도 법인세와 가산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이 사건 소송은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서울시, 필터 교체형 마스크 60만 장 소외계층 지원

111개 봉제업체 통해 제작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보건용 마스크 수급 불균형이 계속되는 가운데 봉제업체를 통해 필터 삽입이 가능한 마스크 60만 장과 교체형 필터 300만 개를 제작해 공적마스크 소외계층에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필터 교체형 마스크는 서울 소재 111개 봉제업체에서 생산된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구 서계동에 위치한 봉제공장(코위강팩토리)을 방문해 마스크 생산 과정을 살폈다. 이후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한 ‘착한마스크 캠페인’에도 참여했다.

이번에 제작하는 필터 교체형 마스크는



정세균(오른쪽에서 두번째) 국무총리와 박원순(맨 오른쪽) 서울시장의 25일 교체형 면 마스크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KF80 이상의 필터를 사용한 제품이다. 서울시는 4월 30일까지 마스크 1개와 교체형 필터 5개로 구성된 필터 교체형 마스크 60만 세트를 제작한다.

서울시는 필터 교체형 마스크를 단기체류 외국인과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고 마스크 1개당 교체형 필터 5개를 제공한다.

한편 서울시는 마스크 수급난 해소를 위해 대상별로 구분해 마스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비교적 감염 위험이 높지 않은 경우인 일반인들은 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건강 취약계층과 감염 고위험 직업군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보건용 마스크를 더 필요한 곳에 양보하는 ‘착한마스크 캠페인’을 시행 중이다. 보건용 마스크 기부 시 면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지원한다.

또 서울시는 각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필터교체형 마스크 생산 시 필터를 지원한다.

김진희 기자 jh6945@

방위비 협상 결렬에… 주한미군, 韓 근로자에 무급휴직 통보

5000여 명 내달 1일부터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 휴직을 개별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달 1일부터 전체 한국인 근로자 9000여 명 중 절반가량인 5000여 명이 무급휴직을 할 것으로 추산된다.

주한미군과 노조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25일 한국인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4월 1일 무급휴직’을 개별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를 통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미는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SMA 타결 전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라도 우선 협의하고자 했지만, 미국 측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한국인 근로자 절반가량의 업무가 중지됨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투준비 태세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만 미국의 불순한 의도가 무산될 수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인한 무급휴직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손석희·윤장현·김웅 언급… “사기 피해 가능성”

경찰 “동영상과는 관련 없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특정 인물을 언급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 씨는 25일 서울종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피해자들한테 할 말 없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손석희(JTBC) 사장님, 윤장현(전 광주)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 씨가 언급한 세 인물이 성 착취물과는 무관한 다른 피해 사실이 있다는 정황을 파악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손 시장과 윤 전 시장, 김 기자를 각기 다른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 중”이라면서 “이분들이 어떤 동영상을 본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드려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시장은 JTBC를 통해 “조

주빈이 차량 접촉사고로 분쟁 중인 프리랜서 기자 김 씨의 사주를 받은 흥신소 사장인 것처럼 텔레그램을 통해 접근해 왔으며 거짓말에 속아 금품 요구에 응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손 시장은 “조주빈이 K씨(김웅)가 나와 가족들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 위해 행동책을 찾고 있고, 본인에게 접근했다고 속였다”며 경찰도 진본인 줄 알 정도로 정교하게 조작된 김 씨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이라면 계좌내역 등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더니 조주빈이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며 “증거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응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이후 조주빈은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잠적한 후 검거됐다는 게 손 시장의 설명이다.

다만 손 시장은 조 씨에게 건넨 금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김중용 기자 deep@

인터뷰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정우성

‘흔들리는 가장, 사체에 시달리는 공무원, 가정이 무너진 주부.’

숨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지쳐버린 이들 앞에 어느 날 갑자기 거액의 돈 가방이 나타난다.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은 돈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그리고 배우 정우성을 떠나 인간 정우성은 막다른 길 앞에서 마주한 유혹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최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감독 감용훈)로 돌아온 정우성을 만났다. 그는 영화에 대해 “누구나의 인생을 단면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자신의 삶은 “지푸라기를 바라지 않는 삶”이라고 못 박았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막연한 시절은 있었어요. 그렇다고 손안에 들어오는 지푸라기를 꼭 움켜쥐지도 않았어요. 10대였죠. 학교를 그만두고 세상에 떠다니고 있었어요. 망망대해에 혼자 있는 거잖아요. 물질적으로도 힘들었고요. 무언가를 잡고 싶어서 기다렸지만, 눈앞에 지푸라기는 잡지 않았어요. 물질을 전제로 한 아르바이트 제안들은 모두 거절했죠.”

정우성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자퇴를 하고, 보이지도 않는 미래 앞에서 고민해야 했다. 상황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누군가는 ‘요행’을 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우성은 바라지 않은 기회는 외면했다.

정우성에게 지푸라기는 ‘희망’이다. ‘쥐뿔도 없는 내가 영화배우가 되고 싶었다’라는 희망.

“소신일 수도 있고 용기일 수도 있고 무모함일 수도 있어요. 막연하지만, 제가 바라는 무엇인가를 기다렸던 거 같아요. 그러다 익사했을 수도 있겠죠? 운 좋게 영화 배우라는 직업을 얻게 되면서 간절했던 그 지푸라기를 잡고 배에 안착해서 지금의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영화는 일본 작가가 쓴 동명의 소설을

“희망 없는 지푸라기 움켜질 필요 있나요”



삶 막막했던 시절에도 물질적 보상 전제로 한 제안은 거절
영화에서 걱정할 만큼 망가졌지만 그래서 더 진지해졌죠
지금까지 얻은 경험들 사회와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고민

원작으로 한다. 정우성은 원작 소설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태영이란 캐릭터를 디자인했다. 사라진 애인(전도연) 때문에 사체에 시달리며 한방의 늪에 빠진 태영을 연기했다. 정우성은 자신의 마음에 집착하는 태영에게 집중했다.

“태영은 연희와 관계에 있었던 마음에 집착해요. ‘내가 널 어떻게 사랑했는데’라며 무엇인가 커다란 보상을 받아야 할 것

같은 것이죠. 기대할 필요도 없는 것에 기대해요. ‘력키’라고 쓰여있는 담배가 자신의 인생에 커다란 행운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태영의 믿음도 자기 마음이에요. 주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어도 불행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태영은 합리적이지 못한 낙전에 자신의 삶을 위탁하는 무책임함을 보이죠.”

태영은 제작자와 감독, 여타 배우들의

예상을 뒤엎는 캐릭터로 탄생했다. 전도연도 현장에서 ‘너 이래도 돼?’라며 정우성이 이렇게까지 망가져도 되는지 걱정했다고 한다.

“영화는 어두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 속에 블랙코미디 요소를 가미하는 것인데, 태영이 그런 요소를 다분히 많이 보이는 인물이지요. 아무도 제게 코미디 연기를 하라고 제안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책임은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리는 태영에 대해 확신했고, 태영이 나올 때 관객들이 잠이라도 쉬어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래서 더 진지했습니다. 모두 즐거워하고 웃어준다고 ‘떡히네. 더 해볼까’ 하는 순간 무너지니까요.”

실제로 태영이었다고 해도 눈앞에 놓인 돈 가방은 신고했을 것이라는 정우성. “모든 물질엔 사연이 있어요. 단순히 물질로 보아시겠지만, 그 사연까지 감당할 자신이 있는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단순히 갖느냐 갖지 않느냐는 생각만 하지 않게 되죠. 모든 것을 책임질 의향이 있다면 책임져야 겠죠. 근데 지금 정우성에게 돈 가방 가져갈 거냐고 물어보시면 모범적인 답안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웃음)

10대 정우성에게 지푸라기는 희망이었다면, 26년 차 배우 정우성에게 희망은 무엇인지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잘 죽는 것”이었다.

“남은 것, 나이 먹는 것밖에 없잖아요. 기성세대가 더 할 수 있다고 우기니 세대교체가 되지 않는 것이예요. 마무리를 서서히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경험, 얻은 것들을 사회와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늘 고민해요. 영화 제작도 나눔의 일환이겠죠. 신인 감독이나 아직 기회가 없었던 친구들과 함께 해나가는 것도 그래서예요. 오랫동안 그 역할을 제가 해 나가야 겠죠.”

늘 자신과 나아가 사회와 대화를 한다는 그에게 가장 소소하게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물었다. 정우성다우면서, 이 역시 관심이 되는 대답이었다.

“넋 놓을 때요.”(웃음)

김소희 기자 ksh@

새로 나온 책



10초 15분 1주일
미키 다케노부 지음
/송은애 역음/시크릿하우스 펴냄/1만5000원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은 직원들에게 항상 “10초 이상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한다. 10초간 생각해도 모르겠다면 그 이상 혼자 생각한들 답은 나오지 않으니 다른 사람과 논의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혼자 일을 쥐고 있지 마라. 업무에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 재빨리 다른 사람의 지혜와 정보를 빌려, 빠르게 의사결정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도 능력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업무 일정은 ‘15분’을 최소단위로 하여 짜다. 처음부터 30분이나 1시간 단위로 계획을 세우면 불필요한 시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큰 단위를 전제로 하지 말고, 작은 시간을 기본 단위로 삼아서 한 가지 업무당 소요되는 최소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좋다.



유튜브 스피치: 말하는 크리에이터로 성공하는 법
신유아 지음/아라크네 펴냄/1만5000원
초등학생 가운데 50%가 넘는 아이들의 꿈이 ‘유튜버’

(Youtuber)’라는 통계가 나왔다. 유튜버에 대한 인기는 나날이 급상승하고 있다. 잘나가는 유튜버가 되면 부와 유명세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유튜버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저자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ASMR(뇌를 자극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는 소리) 채널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채널은 유튜버가 말을 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채널은 소통을 잘하고 매력이 있다”며 “매력은 외모만이 아닌 당신이 전달하는 ‘말’도 소통이다”라고 한다.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4월호 발매

COVERSTORY 에이자리스를 정의하다

PART1. Activity - 액티브 시니어, 스타트 액티비티
PART2. Group - 젊은 감성 'Great Grey'가 모인다
PART3. Elegance - 젊은 세대 넘어선 '럭셔리' 완성
PART4. Love - 여전히 매력적인 당신, 사랑 나누기 좋은 때
PART5. Earning - 몸은 늙었지만 투자는 '청춘'
PART6. Spending - 젊은 취향의 시니어, 소비 트렌드를 이끌다
PART7. Study - 배움이 있는 한 젊음은 '현재진행형'

더불어 숲
오솔길 하나 마음에
들어놓고 싶지

나 홀로 항해로 망망대해를 노닐다

그의 집은 바다에 있다. 바다 위에 집을 짓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다. 꿈과 정성의 집, 그걸 바다에 두고 산다. 다시 말해 바다에 흠뻑 젖어 있다. 요트를 타고 대양을 누비는 모험에 심취해 달리 남은 욕망이 없다. 이렇게 물길이 감겨져서 즐거움이 커졌다. 즐거움이 커 물길이 깊어졌을 수도 있었다. 여허는 단 한 번 주어진 생을 으쌰으쌰 즐기는 쪽으로 몰아가는 사람의 정경엔 노련한 인생 항해술이 보인다. 독심과 낭만으로 반죽된 고무의 기쁨이 서려 있다.

Living & Home 집 안으로 스민 산뜻한 자연, 보태니컬 리빙 아이템

가자마다 꽃이 피고 초록빛 생기가 가득한 4월이다. 봄기운 머금은 자연에 풍덩 빠져들고 싶지만 마음처럼 나설 수 없는 요즘. 산뜻한 보태니컬 패턴이 가미된 리빙 아이템으로 아쉬움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

생생 부동산 현장 황금노선 품은 황금도시 밀가

서울시 송파구 청자동, 경기도 성남시 청곡동, 하남시 학암동이 맞닿은 위례신도시 부동산(사장이 다시) 몸들치고 있다. 그동안 정체했던 개발 호재가 점차 뚜렷해지면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례 신도시가 품은 호재와, 실제 투자 가능성을 들여다왔다.

시니어 밥상
홈메이드 사찰음식+ 싱그러움 봄날, 시금치의 화려한 변신

투자 고수와 놀자
최저산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수석팀장 은퇴 후에도 고정수입 올리는 법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 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코로나도 막지 못한 ‘봄 분양열기’…알짜 단지 노력볼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공포에도 신규 분양 단지 청약 열기는 가시지 않는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로또 아파트’를 분양받겠다는 열망으로 청약자들 발걸음은 되레 분주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4~5월 일반분양을 앞둔 아파트 단지는 약 7만 8000가구다. 특히 서울에선 4월에만 8485가구가 분양한다. 올해 남은 서울지역 일반분양 물량(2만1938가구) 가운데 38.6%가 4월에 몰려 있다. 놓쳐선 안 되는 큰 장이다. 4월 28일로 예정됐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한이 석 달 미뤄진 것도 호재다.

분양 일정이 분산되면서 청약 기회가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용 청약이라면 분양 물량

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6~7월에 ‘올인’할 게 아니라 꾸준히 청약 을 넣어야 당첨 확률을 올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

부동산시장에선 올 봄~여름 청약 기회를 놓치면 한동안 새 아파트 입주가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업계에선 당장 내년부터 새 아파트 공급량(2만1739가구)이 올해(4만3006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예상한다. 공급이 줄어든 만큼 청약 경쟁은 치열해지고, 청약 당첨에 필요한 가점도 올라간다.

청약자들은 이미 이달부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달 3일 대구 중구 ‘청라힐스 자이’ 1순위 청약에선 경쟁률이 평균 141.40대 1까지 올랐다. 394가구를 분양했는데 5만5710명이 몰렸다. 코로나19가 대구에서 맹위를 떨치던 중 거둔 실적이라 더욱 돋보인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 ‘쌍용 더플래티넘 해운대’도 18일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226대 1을 기록했다. 최근 2년 동안 부산에서 분양한 단지 가운데 청약 경쟁이 가장 치열했다. 이 같은 열기에 건설사들도 건본주택을 사이버 건본주택으로 갈음하면서까지 분양 흥행몰이에 나서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해도 역시 입지가 청약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할 것”이라며 “강남이나 과천 등 앞으로 공급이 쉽지 않은 지역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청약자 입장에서 분양가가 적정하지,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잘 따져 보고 청약을 넣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구 달성공원역 앞…49층 랜드마크 단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현대건설이 대구 중구 도원동에 들어서는 주거복합 단지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을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은 지하 6층~지상 49층, 5개동(오피스텔 1개동 포함) 규모로 지어진다. 아파트 894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 256실 등 총 1150가구로 이뤄진다.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연면적 약 2만 6749㎡ 규모의 단지 내 상업시설인 ‘힐스 에비뉴 도원’이 들어선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 84~107㎡로 △84㎡ 534가구 △99㎡ 90가구 △107㎡ 270가구로 구성됐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 84㎡로 소형 아파트 수준의 공간을 갖췄다.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은 대구 중구의 중심 입지에 지역 내 최고층인 49층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된다. 도시철도 3호선 달성공원역이 바로 앞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주거복합단지로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다.

대구역 네거리부터 달성공원역 주변까지 중구 태평로 일대는 지역 내 대표적인 원도심이자 대규모 도심



개발지역으로서 약 1만1000가구 규모의 새로운 주거벨트를 형성할 전망이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대구 중구 최중심에 위치해 도심의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데다 달성공원 및 수창공원도 가까워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편리하게 누릴 수 있어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견본주택을 온라인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홈페이지를 통해 입지 여건과 단지 배치, 실제 모델하우스에 지어진 유니트, 모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안산선 개통편 여의도 20분대로 접근

대우건설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대우건설이 경기 광명시 광명뉴타운 15구역에 재개발하는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아파트를 5월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7층짜리 12개동에 1335가구(전용면적 36~84㎡)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460가구다. 전용면적별로 △36㎡ 44가구 △49㎡ 36가구 △59㎡A 71가구 △59㎡B 242가구 △59㎡C 67가구다.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아파트는 지하철 7호선 광명 사거리역이 가까워 서울 등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다. 지하철 이용 시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는 5분 내로, 고속터미널역, 강남구청역 등 강남권까지는 30분대에 접근할 수 있다. 남부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 강남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KTX광명역 등도 가깝다. 안산에서 여의도, 서울역까지 연결되는 신안산선이 2024년 개통하면 여의도까지 20분대에 접근이 가능해진다. 월곶에서 안양, 판교를 연결하는 월곶-판교 복선전철(2025년 개통 예정)과 광명에서 서울 강서구를 잇는 광명서울고속도로(2023년 개통 예정)도 예정돼 있다.



이마트 광명점을 비롯해 롯데시네마, 광명전통시장 등이 도보권에 있다. 철산역 주변의 2001아울렛, 김스클럽, 철산로데오거리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KTX광명역 주변에 조성된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프리미엄 아울렛과 스타필드 옥길도 이용이 가능하다.

단지가 들어서는 광명뉴타운은 경기권 뉴타운 중 최대 규모로 현재 11개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약 2만5000가구가 거주하는 신주거 타운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견본주택은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대체된다. 입주는 2022년 말 예정이다.

59㎡가 296가구…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우미건설 검단신도시 우미린 에코뷰

우미건설이 다음 달 6일부터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B12블록에 들어서는 ‘검단신도시 우미린 에코뷰’ 아파트를 분양한다.

우미건설은 이날 특별공급 신청을, 7일과 8일엔 각각 1·2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14일, 정당계약은 27~29일로 예정돼 있다.

검단신도시 우미린 에코뷰엔 지하 2층~지상 29층 높이로 4개동이 들어선다. 입주 규모는 총 437가구로, 전용면적별로 △59㎡ A형 186가구 △59㎡ B형 81가구 △59㎡ C형 26가구 △84㎡ A형 115가구 △84㎡ B형 29가구가 공급된다. 우미건설은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중소형 평형 위주로 단지를 구성했다. 특히 296가구를 분양하는 전용 59㎡형은 지금까지 검단신도시 내 공급량이 342가구밖에 안 돼서 희소성이 크다.

검단신도시 우미린 에코뷰 근처엔 2024년 인천 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검단연장선이 개통되면 서울 마곡까지 10분, 서울역과 여의도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 서울지하철 5·9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도 검단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 원당대로나 서울외곽순환도로, 김포한강로, 공



한고속도로 등과도 가까워 도로 교통도 편리하다.

검단신도시 우미린 에코뷰에선 대부분의 동을 남향으로 배치, 통풍과 채광이 좋다. 모든 가구가 판상형 4베이(방이나 거실을 아파트 전면 배치하는 설계) 구조로 설계된 데다 팬트리와 드레스룸이 설치돼 실내 공간도 넓게 활용할 수 있다.

우미건설은 이달 2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검단신도시 우미린 에코뷰’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를 막기 위해 실제 견본주택을 온라인으로 갈음했다. 다만 당첨자 발표 이후엔 당첨자에 한해 실제 견본주택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독섬 복합주거 단지로 조성…연내 준공

대림산업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한강변 새로운 랜드마크인 대림산업의 ‘아크로 서울포레스트’가 연내 준공된다.

대림산업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 독섬 일대에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된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는 2017년 7월 착공해 현재 공정을 70%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외관작업을 완료했다.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다.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로 구성된 복합문화 공간이다. 주거 단지 2개동, 프라임 오피스인 디타워, 미술관과 공연장이 결합된 디아트 센터 등으로 이뤄진다. 주거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9층, 전용면적 91~273㎡ 280가구 규모다.

업계는 아크로 서울포레스트가 ‘갤러리 포레’, ‘트리마제’와 함께 이 일대를 신형 고급 주거지역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수동은 서울시가 2003년 서울숲 개발 계획을 발표한 이후 독섬지구개발, 한강변 전략정비구역과 더불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아크로 서울포레스트가 한강 남측에 위치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와 잠원동 아크로 리버뷰를 바라보며 ‘아크로 트리아앵글’



의 꼭지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 중인 용산구 한남3구역과 서초구 신반포 15차 사업을 수주해 아크로 한강벨트를 구축한다는 게 대림산업의 복안이다.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는 3면 개방형 평면으로 설계됐다. 3면으로 창이 나 있어 조망과 채광, 통풍이 뛰어나다. 창문 밖 자연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창문 프레임에 얹고 아트프레임을 적용했다. 천장 높이는 기존 아파트(2.3m)보다 높은 2.9~3.3m로 설계했다. 진도 9.0의 지진을 견디는 내진설계와 스마트홈(IoT) 서비스 등 첨단 시스템도 대거 적용됐다.

지하철·마트·대학병원... 생활인프라 ‘굿’

삼성물산 래미안 용두6구역

삼성물산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53-9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래미안 용두6구역(가칭)’ 단지를 다음 달 분양한다.

래미안 용두6구역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1층짜리 16개 동에 총 1048가구가 이뤄졌다. 이 중 전용면적 51~121㎡ 47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 수는 △51㎡ A 52가구 △51㎡ B 12가구 △59㎡ A 63가구 △59㎡ B

10가구 △74㎡ A 16가구 △74㎡ B 72가구 △84㎡ A 67가구 △84㎡ B 87가구 △84㎡ C 55가구 △84㎡ D 34가구 △89㎡ 5가구 △101㎡ A 1가구 △101㎡ B 1가구 △109㎡ 1가구 △121㎡ 1가구다.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이하 중소형 타입이 전체 물량의 98% 이상을 차지한다.

래미안 용두6구역은 신설동역(지하철 1·2호선·우이신설선), 제기동역(1호선)이 모두 도보 거리에 있다. 제기동역에는 동북선 경전철(사업실시계획 승인)이 정착할 예정이다. 제기동 다음 역인 청량리역에서는 분당선, 경춘선, 강릉선KTX를 이용



할 수 있다.

내부순환로 마장IC도 가깝다. 동부간선도로와 북부간선도로 진입도 쉽다.

단지 인근에 생활편의시설도 많다.

이마트(청계천점), 홈플러스(동대문점), 롯데백화점·롯데마트(청량리점) 등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물론 경동시장, 신설동종합시장, 동묘시장, 서울중앙시장, 황학동벼룩시장 등 전통시장도 이용하기 좋다. 고대안암병원, 서울대병원, 경희대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도 차량으로 10분 거리다.

교육 여건도 좋다. 대광초(사립), 용두·종암초, 성일중, 대광중, 대광고(자율형사립고), 용문고 등으로 통학 가능하다. 고려대·성신여대 등도 가깝다.

삼성물산 분양 관계자는 “지하철역과 인접한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인 데다 일대 인프라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 수요층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래미안 용두6구역 입주 예정일은 2022년 7월이다.

강남 트리플 역세권... 초·중학교 도보 통학

롯데건설 르엘 신반포

롯데건설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르엘 신반포’ 아파트를 이달 분양한다.

르엘 신반포는 신반포 14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짜리 3개 동, 총 280가구 규모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67가구다. 전용면적별로 △54㎡ 13가구 △59㎡ 13가구 △84㎡ A 13가구 △84㎡ B 20가구 △100㎡ 8가구가 공급된다.

단지는 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아파트다.

신세계백화점(강남점) 및 센트럴시티 등 고속버스터미널 상권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주변에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이 있다. 반원초등학교와 경원중학교는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있다. 세화고등학교와 반포고등학교도 단지와 가깝다. 한강 주변 반포 한강공원과 잠원 한강공원, 세빛섬, 서리풀공원과 몽마르뜨공원 등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4849만 원 선이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54㎡ 10억1400만~11억3700만 원 △59㎡ 10억9500만~12억3000만 원 △84㎡A 15억2400만~16억5300만 원 △84㎡B 14억8300만~16억7200만 원 △100㎡ 17억6400만~최고 19억6700만 원이다.



단지 외관은 커튼월 룩으로 시공하며, 오픈 발코니와 옥상 구조물 특화를 적용했다.

외부 공간 조경은 다양한 정원 스타일을 꾸미고, 라운지 거든과 풀숲아트리움, 수경 시설이 어우러진 아쿠아카페, 어린이 놀이터 등 다양한 콘셉트의 휴식 공간도 단지 곳곳에 조성된다. 가구 내에 자동으로 공기청정과 환기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기청정환기시스템이 적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견본주택은 열지 않는다. 대신 27일부터 롯데캐슬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30일 한국감정원 청약 사이트인 ‘청약홈’을 통해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9일로 예정돼 있다.

학교·공원·쇼핑 ‘3박자’... 신수원선 수혜

포스코건설 더샵 광고산 퍼스트파크

포스코건설이 수원시 원도심에 처음으로 ‘더샵’ 브랜드 아파트를 선보인다.

포스코건설은 다음 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들어서는 ‘더샵 광고산 퍼스트파크’를 분양한다. 수원 원도심인 장안구 최초의 더샵 브랜드 아파트다.

더샵 광고산 퍼스트파크엔 지상 최고 21층 높이로 8개동이 들어선다. 총 666가구 중 일반분양 물량은 475가구다. 전용면적별로 △36㎡형 60가구 △59㎡형 68가구 △71㎡형 56가구 △84㎡형 291가구가 공급된다. 포스코건설은 중소형 평형을 선호하는 추세에 맞춰 모든 가구를 전용 84㎡ 이하로 설계했다. 2022년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더샵 광고산 퍼스트파크는 단지 옆에 영화초등학교를 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다. 수성중·수원북중, 수원농생명과학고 등도 단지 가까이 있어 교육 여건이 뛰어나다. 걸어서 10분이면 홈플러스와 CGV, 수원 KT위즈파크 야구장, 광고산, 영산공원 등 생활·문화 시설을 누릴 수 있다.

개발 잠재력도 풍부하다. 단지 인근에 신수원선(인덕원~동탄 북선전철) 수원야구장역이 생긴다. 신분당선을 조원동을 거쳐 호매실까지 잇는 연장 사업도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더샵 광고산 퍼스트파크는 대부분 가구가 남향으로 배치돼 채광이 좋다.

판상형과 타워형 아파트를 함께 단지에 배치해 청약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센터와 실내 골프연습장, 다목적 체육관, 독서실, 북카페 등이 들어선다. 포스코건설은 잔디마당과 티하우스, 팜가든, 테마 가로수길 등 다양한 조정 공간도 꾸며냈다.

포스코건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단지를 소개할 예정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현실(VR) 촬영 화면과 단지 모형도, 단지 특장점 등을 제공한다. 전화와 메신저 상담 창구도 운영기로 했다.

분양가 낮추고 중도금 30% 무이자 혜택

한화건설 포레나 거제 장평

한화건설이 경남 거제시에서 선보인 ‘포레나 거제 장평’ 아파트가 분양가 인하와 금융 혜택 등에 힘입어 계약률이 급상승하고 있다.

거제시 장평동 일대에 들어서는 포레나 거제 장평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25층 9개 동 817가구 규모로 이 중 26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타입별 가구 수는 △84㎡A 195가구 △84㎡B 45가구 △99㎡ 22가구로 구성된다. 이 아파트는 최근 조합원을 포함한 입주 예정자들의 요청으로 단지명을 포레나 거제 장평으로 바꿨다. 분양 조건과 금융 조건도 변경했다.

분양가는 3.3㎡당 860만~960만 원대로 낮췄다. 입주 주민들의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중도금 30% 무이자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분양가 조정과 금융 혜택 등으로 계약률이 급상승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포레나 거제 장평 아파트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도보권에 위치한다. 거제대로, 14번 국도, 계룡로, 거제중앙로 등과 인접해 있으며, 고현버스터미널을 비롯해 20개 이상의 노선이 다니는 시내버스 정류장이 가깝다. 최근엔 김천부터 거제까지 이어지는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 KTX선)의 조기 착공도 점쳐지고 있다. 단지와 인접한 장평초와 양지초를 비롯해



도보 거리에 다양한 학교가 위치해 있다. 디큐브백화점, 홈플러스, 장평주민센터, 법원 등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판상형 및 개방형의 남향 위주 구조에다 모든 타입에 파우더룸이 적용된다. 일부 타입은 발코니가 맞통풍 구조로 주방과 연결되고, ‘ㄷ자형’ 주방 등으로 설계됐다.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층간 소음제와 300mm의 가구 간 벽체도 적용했다.

송희용 한화건설 분양소장은 “단지가 들어서는 장평동은 인근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가 위치해 많은 입주 수요를 품고 있는 데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까지 갖춰 거제에서 손꼽히는 주거지”라고 말했다.

안정적 수요에 저렴한 분양가 ‘강점’

부영주택 메이플 밸리 부영 상가

부영주택은 26일 강원 원주시 단계동 ‘메이플 밸리 부영’ 아파트 단지 상가를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분양한다. 이번에 분양하는 상가는 메이플 밸리 부영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해 있다. 아파트 내에 자리 잡은 만큼 입주민 798가구의 배후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분양한 메이플 밸리 부영엔 그해 10월부터 입주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상가는 지상 1~2층 단일 동(棟)으로 구성돼 있으며, 여섯 개 점포가 입주할 예정이다. 점포당 전용면적은 34~102㎡다. 부영주택은 입주 수요가 많은 소형 점포 중심으로 상가를 구성했다.

부영주택은 상가 분양가로 1층은 3.3㎡당 1200만~1300만 원, 2층은 400만~500만 원을 매겼다.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다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분양가가 많게는 3.3㎡당 2000만 원을 넘어선 점을 고려하면 가격 경쟁력이 크다는 게 부영주택의 설명이다.

상가 입주 계약은 입찰이 끝난 다음 날인 27일 체결한다. 계약만 마치면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입주해 점포 영업을 준비할 수 있다. 메이플 밸리 부영은 준공 후 분양하는 ‘후분양 단지’이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아파트 주변 시장 상황을 직접 둘러보고 입찰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부영주택 측은 “주변 시세는 물론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저렴한 데다 소형 평형 위주의 구성으로 꾸준히 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영주택은 이와 함께 메이플 밸리 부영 잔여 가구도 공급하고 있다. 공공임대 아파트인 메이플 밸리 부영은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다. 임대료는 전용 59㎡형은 보증금 7600만 원에 월세 14만1000원, 전용면적 60㎡형은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20만8000원이다.

Schönzane

미끄러질듯 깨끗하게!

소중한 내차를 위한 최상의 광택과
표면보호, 센잔으로 코팅하세요.

센잔 유리막 코팅제는 계절변화에 매일 무방비로 방치되어
흐려진 자동차의 광택을 유리처럼 투명하게 코팅해줍니다

항사, 미세먼지 대비 특별 판매가!

1세트 59,800원

2세트 ~~119,600원~~ 99,000원



시험성적서



자율안전확인번호
B073H025-7006A



자율안전확인번호
B073H025-0007

힘들이지 않고! 돈 들이지 않고! 내 손으로 직접하는 내차관리, 특허 받은 유리막 코팅제 센잔으로 시작하세요!

최상의 광택과 차량보호까지 한번에

Schönzane

소중한 당신의 차를 위한 솔루션, 센잔은 세계적인 기업인 독일 클라이언트사의 순수 폴리실라잔 원료를 사용한 최고급 유리막코팅제로, 365일 매일 매일 변함없는 광택을 유지해 드립니다.

뛰어난 발수력과 쉬팅

뛰어난 발수코팅으로 표면에 물이 맺히지 않고 빠르게 흘러 내려 세차 및 유지관리가 쉬워집니다

이물질과 스크래치 OUT

차량 표면에 단단한 코팅막을 형성하여 도장면의 이물질과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먼지로부터 도장면 보호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로부터 자동차의 바디를 깨끗하게 보호해주며 세차도 간편합니다.

뛰어난 내열성 코팅

높은 열을 견딜수 있는 우수한 내열성 코팅으로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도 변함없이 항상 새차처럼 유지해줍니다

***왜 유리막 코팅이 필요할까요?** 주행 및 주차시, 자동차 도장면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오염물, 특히 미세먼지 속 철분가루가 표면을 천천히 부식시키고 자동차 표면의 거칠어져 자동차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1세트 제품구성

• 센잔 GLASSKOTE(유리막코팅제) : 50ml • 센코트(유리막관리제) : 100ml
• 센크린(차량흡집제거제) : 80ml • 초극세세용 3종(소-2 대-1) • 작업용보드

카드 3개월 무이자 할부 | 온라인주문 www.arambi.kr

통신판매업자신고번호 : 제 2014-서울중구-0505호

아람비스토어



주문전화 080-600-2020

“미래한국당 보건의료 인식에 실망”

‘비례대표 사퇴’ 방상혁 의협 부회장

당선권 밖 22번 배정에 반발
시민당·국민의당 1번과 대조
“외신, 韓 코로나 대응 긍정 평가
정부 잘해서가 아니라 건보 덕
생활치료센터도 의료계서 제안”

“저 개인의 영광을 위한 출마가 아니었기에, 미래한국당의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에 크게 실망한 대다수 회원의 뜻을 받들어 사퇴코자 합니다.”

방상혁(사진) 대한의사협회(의협) 상근부회장이 24일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하며 남긴 변이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의협에 가장 협조적이었던 미래통합당이었지만, 비례대표 명단에선 방 부회장을 당선권 밖인 22번에 배정했다. 신현영 전 의협 대변인과 최연숙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부원장을 각각 비례대표 1번에 배정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국민의당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선 최대집 의협 회장도 입장을 내 “(의료인을 비례대표 1번에 배정한 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정치권에서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나마도 방 부회장은 23일 한선교 전 대표와 공병호 전 공천관리위원장 체제에서 발표된 비례대표 명단에서 20번을 받았으나, 24일 전면 교체된 명단에서 22번으로 밀렸다. 방 부회장은 25일 이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퇴의 변 이상으로 할 말은 없지만, (미래통합당이 보건의료를 우선순위에 놓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회원들이 많았다는 정도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선 정부·여

당보다 미래통합당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당 차원에서 가장 대응을 잘한 건 미래통합당이었다”며 “의협과 계속 소통하고, 의협이 권고하는 의학적 원칙을 가장 존중하고, 중국발 입국 제한에 대해서도 의협과 같은 목소리를 내왔다”고 평가했다.

정부·여당에 대해선 “초기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막지 않아서 사태를 키운 데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부 외신에선 한국이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걸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잘 정착됐기 때문”이라며 “이건 현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 박정희 정권에서 만들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치료센터 등 일련의 시스템도 정부가 선도적으로 제안한 게 아니라 의료계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의료진의 헌신 덕에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전선에서 이만큼 버티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의료진의 노고를 평가하기는커녕 코로나19가 발생한 요양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등 의료진의 사기를 꺾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 부회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건의료 전문가 중 의협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정부는 의협의 의학적 견해를 제대로 경청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미국, 코로나 섰다운 피할 기회 놓쳤다”

빌 게이츠 “1월 통제 없이 지나쳐...6~10주 더 필요”

빌 게이츠(사진)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가 24일(현지시간)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섰다운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게이츠는 이날 TED커넥트 프로그램에서 “미국은 섰다운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를 섰다운 없이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1월에는 주의를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병이 확인된 것은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다. 이후 세계 곳곳으로 급속히 확산한 코로나19는 지구 반대편인 미국 전역에까지 퍼졌다. CNN 방송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등 최소 16개주가 ‘자택 대피’를 발령했다. 일부주들은 필수적이지 않은 사업체와 점포에 대해 문을 닫도록 명령했다.

게이츠는 자가 격리가 경제에 ‘재앙’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절충안은 없다”며 6~10주가량의 섰다운을 제안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미국을 어찌면 한국처럼 위대하게’?

美 방송인, 코로나 대응 비판 “트럼프 재선 슬로건 바꿔라”

미국 유명 방송인 하워드 스텐(66·사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면서 그의 재선 캠페인 슬로건을 “미국을 어찌면 한국처럼 위대하게”(Make America as great maybe as South Korea)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인터넷 라디오 시리즈 XM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프로그램 ‘하워드 스텐 쇼’를 진행하고 있는 스텐은 이날 방송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극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캠페인 슬로건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내세웠고, 올해 재선 캠페인 슬로건으로는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Keep America Great)를 내세우고 있다.

스텐은 “한국은 마스크를 보유했고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파악했다. 엄청나다(It’s crazy)”라며 감탄했다. 더힐은 스텐의 이러한 발언이 한국은 코로나19에 대한 공격적 대응으로 널리 칭찬을 받고 있지만, 미국은 초반에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판을 받는 와중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홍석동 기자 hong@

LG화학 노사, 대구·경북에 코로나19 성금 1억 전달

LG화학은 24일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모은 1억 원의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노사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성금은 대구·경북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관리 현장의 의료진에게 필요한 위생용품, 식료품 등을 제공하는 데 쓰인다.

해당 물품들은 지역 소상공인을 통해 구매한다. 앞서 LG화학은 대구·경북 지역 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노사 공동 주관으로 ‘만원의 나눔’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 성금이 어려운



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의료진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한화토탈, 쪽방촌 주민에 식료품세트

한화토탈은 24일 서울사무소 인근에 있는 남대문 쪽방촌을 찾아 주민 450여 명에게 식료품 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무료급식 등 대면으로 이뤄지는 식사 지원 활동이 크게 줄면서 취약계층의 끼니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차원이다. 식료품 세트는 레토르트 식품과 밀반찬 등으로 구성했다.

손주희 한화토탈 사회공헌담당 차장은 “이번 식료품 후원이 주변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농협대 신임 총장에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 선임

농협대학교 신임 총장에 최상목(58)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선임됐다.

농협중앙회는 24일 열린 농협학원 이사회에서 최상목 전 차관이 신임 농협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최상목 신임 총장은 서울 출신으로 오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



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정책협력실장, 부총리 정책보좌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 등을 역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행시 동기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SH공사 상임이사에 박완수 경영지원처장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거복지본부장(상임이사)에 박완수 경영지원처장이 25일 선임됐다.

박 본부장은 1987년 6월 서울시 서초구청을 시작으로 1990년 SH에 입사해 고객센터부장, 강남권역통합관리센터장, 보상팀장, 재생기획팀장, 투자사업팀장, 총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 1급 승진해 인재개발처장, 경영지원처장 등 요직을 거쳤다.

박 본부장의 임기는 2023년 3월 24일까지 3년간이다. 김진희 기자 jh6945@



인사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행정운영과장 박이상

◆국토교통부 ◇과장급 파견 △주미안 마대사관 지동선

◆에이클라 미디어그룹 ◇신규 선임 △스타티브이 대표·스포티브이 방송사업부장 강명국

현대차 정몽구 재단 ‘문화예술 장학생’ 내달 17일까지 접수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문화예술계를 이끌어 갈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0년 온드림 문화예술 인재 장학생 선발 오디션’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디션 분야는 클래식 부문(피아노·성악·현악·관악)과 국악 부문(성악·국악기), 무용 부문(발레·현대무용) 등 3가지다. 각각 대학생(학부)과 중·고등부로 나뉘어 선발하며, 응모자격은 1~3학년인 대학생, 1~2학년 중·고등학교 학생이다. 만 17세 이하의 홈스쿨링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졸업 때까지 등록금 전액과 함께 매 학기 학습지원비가 지원된다. 또한, 국내외 국제 콩쿠르 참가 시 경비를 지원하고, 해외 우수 대학과 예술단체 진출 시 체제비도 지원한다.

신청서류와 예심 영상 제출은 내달 17일까지이고,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실기 오디션을 거쳐 6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유창욱 기자 woogi@

윤일중 티시스 대표이사 별세

윤일중 태광그룹 티시스 대표이사가 25일 오전 10시 5분께 별세했다. 향년 67세. 고인은 경남고와 부산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1979년 LG상사(당시 반도상사)에 입사해 2010년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를 역임했다. 2014년 퇴임 후에도 후배들을 위해 2년 넘게 고문 역할을 맡았다. 2018년 말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시스의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긴 고인은 1년 반 동안 재직하며 조직 융화를 위한 제도



통합, 정도경영을 기반으로 한 소통하는 조직 문화 형성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유족으로는 부인박경미 씨와 딸 서영(라인플러스㈜차장) 씨, 사위 장영수(BMW코리아㈜매니저) 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02-3010-2262), 발인은 27일 오전 6시 40분에 진행하며 장지는 천주교 용인공원묘원이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부음

▲이용선(전 IBM 고문, 고 권용원 전 금융투자협회장 부인) 씨 별세 = 24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6일 오전 10시 40분, 02-2258-5940
▲최진명 씨 별세, 최원식(웹소나이트코

리아 사장)·원준 씨 부친상 = 25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7일 오전 7시,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02-3410-6903
▲정징자 씨 별세, 김진환·희진(커런트코리아 부사장) 씨 모친상 = 25일, 동국대 일산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27일 오전 6시 20분, 031-961-9400

자본시장 속으로



조두영
변호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권한 없이 책임만 있는 조직은 말이 안 된다. 이제는 원래 금감원에 속했던 것, 설립 당시의 순수한 금융기업·금융시장에 대한 감시와 감독(watch dog)을 하는 온전한 기능을 금감원에 되돌려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노경아의
라온 누리

편집부 교열팀장

커피 마시는 이유가 궁금하다. 나는 향이 좋아서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신다. 갖지 은 밥 냄새, 닭튀김 냄새(특히 맥주가 당길 때), 상큼한 레몬향, 숲속 솔향기… 기분 좋은 냄새는 손에 짚고도 남는다. 그런데 고소한 향의 커피는 잠까지 깨워주니 출근길 늘 마시게 된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해 가을 직장인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나와 같은 이유로 커피를 마시는 이가 여럿이다. ‘잠을 깨기 위해서’ 커피를 마신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습관’, ‘동료와의 소통을 위해서’라는 대답이 뒤를 이었다. 하루에 평균 두 잔을 마시고, 커피값으로 한 달에 12만 원 정도를 쓴다니 한국인의 커피 사랑이 참 대단하다.

‘둘 둘 둘’이란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타 먹는 커피가 대세이던 시절 커피·설탕·크림의 비율이다. 믿기 힘들겠지만 1990년대 초까지도 기업의 여자 직원들은 상사나 회사 방문객의 커피를 탔다. 심지어 ‘자

20년 전 금감원 설립, 그 취지를 되돌아보자

얼마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을 특별감찰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감찰의 목적에 대해서는 DLF 사태 발생에 대한 문책설, 라임자산운용 폰지사기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자 진상조사를 한 것이라는 설, 금감원 감독 부실이나 금융기업에 대한 과도한 징계 때문이라는 설 등등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했다.

그런데 특별감찰을 한 목적이 무엇이든, 국가기관도 공공기관도 아닌 금감원을 상대로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은 ‘닭 잡는 데에 소 잡는 칼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금감원은 예산 편성에서부터 직원 출퇴근 점검까지 금융위원회(금융위)로부터 철저한 감독을 받고 있고, 매년 감사원으로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집중 감찰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대형 금융사건이 터질 때마다 검찰 압수수색의 단골이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이 아니면서 매년 감찰, 감독이 되풀이되는 곳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금감원이 유일할 것이다.

또한 주요 언론사들도 금감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호적이지 않다. 금융위 등 정부부처와 달리, 금감원은 그 역할을 다른 조직으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냉정하게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기사나 보도에 대해 반박할 힘이 없는 약자이기 때문에 비판과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라면 옳지 않다.

사실 금융권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금감원은 기재부, 금융위, 감사원에 비해 매우 미미한 조직이다. 금감원의 권한이라는 것도 금융위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불과해 독자적 권한은 없는 셈이다. 위탁받은 업무라도 그 실질적 효력은 금융위의 최종 결재를 받아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형사소송법상 아무 제한이 없는 ‘고발’ 조차도 금융위 허가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에 누가 더 금융 권력기관인지는 자명하다. 그렇지

만 금융위에 대해 민정수석실이나 감사원이 대대적 특별감사나 감찰을 시행했다는 보도는 접한 적이 없다.

본래 금감원은 1997년 IMF사태 이후에 탄생했다. 그 전에는 금융기업에 대한 감독업무는 은감원, 증감원 등 여러 조직으로 분산돼 있어서 통일적이고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비롯됐다.

다른 한편으로는 IMF사태를 야기한 ‘관치금융’이라는 후진적 행정에서도 탈피할 목적으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민간 특수법인 형태로 만들어졌다.

이런 배경과 목적으로 1999년 금감원이 설립됐고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오늘날 나름 의미 있는 역할과 확고한 위상을 구축했지만 설립 당시의 순수한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금융위, 감사원, 검찰 심지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르기까지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가 일상화돼 버렸다. 이제 와서는 금감원이 반쯤은 정부

커피와 추억, 그리고 이탈리아

기계발 교육 프로그램’이란 이름하에 ‘커피 잘 타는 법’을 가르치는 회사도 있었다. 그러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거치며 타 먹는 커피 대신 커피믹스가 큰 인기를 끌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여직원들이 해고된 영향이 컸다. “커피믹스는 수많은 ‘미스 김’”이라는 말은 당시 만연했던 직장 내 성차별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지금, 카페 한 곳을 지나 1분 정도 걸으면 또 다른 카페가 나올 만큼 원두커피를 선호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다. 그래도 나른하고 피곤한 오후엔 봉지 커피를 뜯는 이들이 많은 걸 보면 커피믹스의 인기는 지금도 여전하지 않다. 그 인기만큼이나 외모도 여러 번 바뀌었다. 직사각형에서 스틱형으로 변하더니 지금은 설탕 양 조절은 물론 뜯기도 훨씬 쉬워졌다.

이 순간 스틱형 봉지 커피를 재치 넘치게 표현한 이환천의 시 ‘커피믹스’가 떠오른다. “내뚝따고 속개내서/끓는물에 넣으라고/김부장이 시키드나” 짧지만 묘한 쾌감을 주는 시다. 네 글자의 운율에 강한 중독성마저 느껴져 무릎을 탁 치며 단번에 외웠다.

커피는 팍팍할 땐 위로가 되기도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이 벌어지는 요즘, 카페가 아닌 집에서 커피를 곱게 갈아 내려서 마시며 든 생각이다. 가족들 과도 다소 떨어져 앉아 마시니 커피는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소통의 매개체가 된다. 커피잔을 비우며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했던 말을 해 본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맛있는 커피!”

커피를 주문할 때 머뭇거린 적이 여러 번이다. 맛과 향이 다양해지면서 메뉴판이 서너 장이나 되는 곳이 많아서다. 커피의 기본은 이탈리아 등 남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에스프레소. ‘빠르다(express)’와 ‘압축하다(press)’라는 말에서 온 에스프레소는 공기를 압축해 짧은 시간에 뽑아낸 커피이다. 여기에 무엇을 얼마나 섞느냐에 따라 커피 이름은 달라진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2019년 스타벅스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에 물을 탄 것이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배급받은 커피를 최대한 많이 마시기 위해 물을 탄 데서 비롯됐다.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우유를 섞으면 이탈리아의 카페라테, 프랑스의 카페오레가 된다. 카푸치노는 거품 낸 우유를 라테의 절반만 넣고 계핏가루나 초콜릿 가루를 뿌린 것으로, 이탈리아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카푸친파 소속 사제의 복장 색깔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에스프레소에 우유 거품만 얹으면 마키아토이다. 우유를 점 찍을(marking) 정도로 적게 넣는다는 뜻이다.

새삼 20여 년 전 찾았던 이탈리아가 떠오른다. 비 내리던 봄날, 로마 판테온 부근의 한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셨다. 이 글을 쓰는 내내 그날의 진한 커피향이 코끝을 맴돌고 있다. 커피의 천국 이탈리아가 코로나19로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어 안타깝다.

가수 이한철이 동료들과 함께 부른 희망의 노래 ‘슈퍼스타’가 우리나라를 넘어 유럽 등 세계 곳곳으로 울려 퍼져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 이 봄이 가기 전 노랫말처럼 되리라 믿는다. “괜찮아, 잘될 거야!”

jsjysh@

이투데이, 말투데이

☆ 린위탕(林語堂) 명언

“참된 지혜는 항상 인간을 침착하게 하고 바른 조화를 기초로 사물을 관찰하게 한다.”

대표작 ‘생활의 발견(生活的藝術)’으로 유명한 중국의 소설가 겸 문명비평가. 중국 문화를 서양에 널리 알린 그는 3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았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고 집도 사지 않았다. 그는 오늘 세상을 떠났다. 1895~1976.

☆ 고사성어 / 계절계검(季札繫劍)

‘계찰이 검을 걸어 놓다’는 뜻. 신의를 중시한다는 말. 원전은 사기(史記) 오대백세기편(吳太伯世家篇). 계찰(季札)은 오(吳)나라 왕의 막내아들. 중원에 사신으로 가는 길에 서(徐)나라 왕을 알현했다. 서왕은 평소 계찰의 보검을 갖고 싶었으나 말하지 않았다. 그도 알고 있었지만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야 해 바치지 않았다. 귀로에 서나라에 들르니 서왕은 이미 죽고 없었다. 그는 보검을 풀어 서왕 무덤의 나무에 걸어놓고 떠났다[於是乃解其寶劍繫之徐君塚樹而去]. 계찰이 한 말. “처음에 마음속으로 그에게 주기로 결정하였는데, 그가 죽었다고 해서 어찌 나의 뜻을 바꿀 수 있겠는가?”

☆ 시사상식 / 양적완화

초저금리 상태여서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도 없을 때,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해소와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의 국채나 다양한 금융 자산 매입을 통해 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통화 정책.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재주

‘무엇을 잘할 수 있는 타고난 능력과 술기, 어떤 일에 대처하는 방도나 꾀’로 풀이하는 이 말은 한자 재조(才操)에서 왔다.

☆ 유머 /이 멘트 언제 어디서나 통한다

“오늘 아침에 동물원에서 전화 왔습시다. 깜찍하고 예쁜 꽃사슴 몇 마리가 없어졌는데 혹시 발견하면 연락 달라고요. 근데 여기 다아 모이셨네요!”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100 대 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들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휴업을 실시한 전통 유통업체와 이커머스의 숫자 차이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가 40여 회를 임시 휴업했고,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28번가량 조기 폐점하거나 휴무했다. 홈플러스는 25회, 현대백화점과 갤러리아는 각각 5회, 3회 휴점했다. 이들 업체 입장에서는 외출을 자제한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 대신 온라인 쇼핑으로 대거 이동하는 분위기 속에서 말 그대로 옆집 데 댔진 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 대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거나, 퇴직을 유도한 사례가 아직 없다.

기적수첩



남주현 유통바이오부/jooh@

온·오프 유통업체 휴점 스코어 ‘0 대 100’

되레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경북 지역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노력한다. 대신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 바로 공정한 게임이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 휴업을 지켜야 하는 데다, 휴업 시간인 밤 12

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 온라인 쇼핑몰은 휴일과 시간 제약 없이 배송 가능하지만 정부는 유독 대형마트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발端到 불이 떨어지자 대형마트가 속한 체인스토어협회는 물론 경제

장석주의 시각

시인·인문학 저술가



봄날 오후에 읽은 시집

오늘날 시의 효용성과 가치를 따지는 일반كم 부질없는 짓은 없을 테다. 시가 돈도 밥도 명예도 되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공작이 펼친 깃털이 아름답다고 굶주린 자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시는 공작 깃털과 다를 바 없는 장식에 지나지 않는다. 한 줌의 언어는 무력하고, 무력하고, 무력할 뿐이다. 밤과 바다, 무덤과 아침 이슬, 나뭇잎과 뿌리의 아름다움과 비밀을 누설하는 시가 식탁 위 후추통보다 더 쓸모없다는 게 중론이다. 쓸모없는 아름다움을 섬기는 시가 현실의 공리적 필요에 부응하지 못함을 부정할 수 없다. 시는 굶주림, 전염병, 인종청소, 전쟁, 폭력, 이념 갈등 같은 세상의 부조리와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시는 끊임없이 씌어져서 굶주린 세대같이 독자를 찾아 날아간다. 시는 흡혈조가 되어 독자의 피를 흡치고, 저 너머 어딘가에 무지개가 있다고 노래하리라. 하지만 우리는 불행과 맞서 싸우느라 미처 그 노래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 없다.

어떤 이는 시인이란 백해무익한 종자라고 단정을 짓는다. '인간을 찾는다'고 대낮에 등불을 든 채 아테네를 누비는 디오게네스의 후예라니! 시인이란 그토록 하염없는 존재들이다. 놀라워라, 우리는 한 해에 시집이 3000종 이상이 쏟아져 나오는 나라에 산다. 이토록 기이한 시의 부흥에 어리둥절하면서도 정작 그 많은 시집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시는 말들의 의식(儀式), 하나의 이야기, 기도, 초대. 아무런 현실감 없이 독자에게 흘러가서 마음을 흔드는 진짜 반응을 일으키는 말들의 흐름."(메리 올리버, '완벽한 날들') 시는 이야기, 기도, 초대, 말들의 흐름이다. 이 마음에서 저 마음으로 흘러가서 파동을 일으키는 말들. 그렇지 않다면야 시집 양산은 쓸데없는 노고와 종이의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시는 메아리가 없는 외침이요, 목청껏 울지도 날개 쳐서 날지도 못하는 병풍의 수탉이요, 아무것도 날지 못하는 그림자의 짝사랑에 그치고 만다.

많은 시인들이 문학잡지와 출판사에 시를 투고하나 게재나 출판을 거절하는 편지를 받는다. 시인들은 곳곳하게 써서 다 시잡지사에 보내고 시집을 묶어낸다. '목적 없이 혼자만을 위한 시'의 양산은 오늘날 시가 처한 가난한 운명을 보여준다. 램프에게 제 시를 읽어주는 시인이여! 그 램프마저 시에 귀를 닫을 때 그저 말없이 빛을 보내주는 것에 기뻐하는 시인이여! "그래서 목적 없이 혼자만을 위한 시를 써서/머리맡 탁자에 놓인 램프에게 읽어 준다./아마도 램프도 내 시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말없이 빛을 보내 준다. 그것만으로 족하다."(헤르만 헤세, '편집부에서 온 편지') 이름이 널리 알려져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고, 문학상을 여럿 받은 시인조차 한 세대 뒤 시는 다 잊히고, 백년 뒤엔 이름조차 망각에 묻힐 게 분명하다. 세월의 풍화를 견디고 살아남는 시인은 한 세기에 몇 명뿐이다. 그러니 자기 시가 불멸할 거라고 믿는 시인이 있다면 그는 과대망상에 빠져 있거나 지

매가 아닌지를 검사해봐야 하리라. 미국 의회도서관의 계관시인으로 뽑힌 도널드 홀은 이렇게 말한다. "시인들 스스로 자기들의 시가 영원불멸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우울증에 걸렸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거나 정신병자일 것이다."(도널드 홀, '죽은 것보다 늙는 게 걱정인')

주말 오후에 한 시인의 시집 두 권을 택배로 받았다. 아주 오래전, 스물을 갓 넘긴 옛된 시절에 198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한 젊은이를 기억 속에 소환했다. 그 뒤 어떤 곡절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무려 마흔 해나 몸을 숨기고 사라졌던 시인 장석이 예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 시집 두 권을 상재하며 돌아왔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나온 첫 시집 '사랑은 이제 막 태어난 것이니'와 두 번째 시집 '우리 별의 봄'을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다.



세월의 풍화를 견디고 살아남는 시인은 한 세기에 몇 명뿐이다. 그러니 자기 시가 불멸할 거라고 믿는 시인이 있다면 그는 과대망상에 빠져 있거나 치매가 아닌지를 검사해봐야 하리라.

해가 기울어 사위가 어두워진 것도 모른 채 후루룩 통독을 한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절멸과 불모의 세월이 그를 짓밟고 지나갔던가? 우리는 그의 과거 편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얼핏 '황금과 이름과 자신의 신을 위해/뱃머리로 바다의 살을 길게 베면서 떠난 이래의/그리고 그 벌어진 상처에/은과 후추와 사람의 피와 기도를 부으며 다닌 이래의/그의 삶의 이력을 알아야 하는가 보다'('기차역 매표소') 같은 구절을 통해 삶의 이력을 어렵게 짐작할 따름이다. 그는 "우는 자와 울리는 자 중에 누가 슬픈 것인가"('슬픔')를 묻는다. 삶의 시와 시의 삶은 다르지 않을 테다. 시집 두 권을 한 자리에서 읽고 나니, 어떤 명현 현상이 몸을 훑고 지나가는 듯하다. 이마가 반듯한 청년이 까만 머리가 반 머머는 희게 변한 초로가 되어 나타난 데는 어떤 곡절이 있었던가를 굳이 캐고 싶지는 않다. 경악과 황망 중에 흘러갔을 그 세월 동안 그이는 "우주론을 읽고/별자리 지도도 펼쳐"('별에게 2')보고, 더러 망각의 갈피를 뒤적이면 "기억도 나지 않는 누군가에게 주었던 마음/아무런 후회 없이 버렸던 약속/말기고 찾지 않아 소멸한 소망"('말미를 다오')도 없지 않겠으나, 이것들은 '비바람과 짐

승에 맨몸둥이로 맞섰던 젊음/가방 안에 놓고 다녔던 계획과 비망록"('말미로 다오') 따위와 더불어 잊어야 하리라.

"나는 이제/해가 나의 뒤로 돌아가기를 기다린다//내 그늘에 의자를 놓고 앉아/멀리 있는 숲이 시작하는 이야기를/읽으려 한다//줄기와 잎들과/대목대목 새들도 불리/노래하듯 써가는 책을//이른 아침의 항구에/완만하게 와 닿는 배처럼//숲은 아주 천천히/여름내 푸른 이야기의 책을 써다오//나는 색맹이 다 되도록 읽다가/눈 어두운 사람이 되도록 읽어나간다/책갈피마다 희고 붉은 꽃을 놓고/달과 별의 불도 밝히고//그대를 불리/내 그늘에 함께 앉겠다//여전히 숲의 책 노래 들으며"('여름의 책' 전문)

'여름의 책'은 지나간 시절에 대한 멜랑콜리가 달콤한 시다. 여름은 빛나는 햇빛이 쏟아지고, 여름숲의 뻗치는 기운은 푸르고 푸르러서 못 생명의 번성에 보탬이 될 것이다. 여름은 혈기방장하나 지혜와 분별은 모자라는 젊음과 닮았다. 젊음이 그렇듯이 여름은 빨리 끝난다. 실처럼 가느다란 뱀장어 새끼들은 자라서 바다로 나가고, 젓먹이 어린것은 살이 오르고 웅알이를 시작한다. 여름이 불꽃의 생을 마치면 어느덧 가을의 소슬한 빛이 대지에 날개를 드리운다. '여름의 책'은 미처 완성되지 못한다. 누가 완성을 자신하는가? 애초에 삶에는 완성이란 없다. '비바람과 짐승에 맨몸둥

이로 맞섰던 젊음/가방 안에 놓고 다녔던 계획과 비망록"('말미를 다오')이 남아 있을 따름이다. 이제 그늘에 의자를 내놓고 앉아서 '멀리 있는 숲이 시작하는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기다리는 이의 눈빛은 순할 테다. 숲에게 "여름내 푸른 이야기의 책을 써다오"라고 부탁한 이는 더 이상 젊지 않다. 벌써 눈이 어두운 사람이 되었건만 '여름의 책'을 읽겠다는 의지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 여전히 "그대를 불리" 그늘에서 함께 숲과 새들이 "노래하듯 써가는 책"을 읽으려고 한다.

먼 바다를 떠돌다가 고향 바다로 회귀하는 신호탄이 될 장석의 시집에는 여린 것들을 품고 기르는 세월 동안 흔들고 가늠해본 제 감념과 명운의 부피와 무게가 고스란히 적재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면야 이 시들이 명치계에 빠긴한 통증 따위를 줄 리가 없다. 세상의 시절 연연은 그 게 아무리 하찮고 모자란 구석이 있는 것일지라도 우리 몸피를 키우는 데 살과 젖과 피를 떼어주고 마른 혀 위로 흘러보내었으리라. 오, 회한 가득한 젖은 목소리로 "세상은 하나의 꽃이었는데"('그대가 산으로 오르는 첫 기차를 타려면')라고 묻고,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던 이"('회염제')였음을 되새김질하며 곱씹어 봐야 한다. 그게 사람다운 노릇이다. 그게 올바른 위에 제 삶을 창건하는 일이다. 봄날 오후에 읽은 시집 두 권은 청춘을 덧없이 흘러보낸 자의 별사(別辭)요, 차마 아무도 모르게 태워버릴 수 없었던 비망록이자, 가슴 한쪽에서 철철 끓며 넘치다가 어느덧 마른 자취만 남은 사랑의 서사다.

사설

대량 실업 현실화, 고용대란 공포 커진다

코로나19 사태의 후폭풍으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면서 이미 실업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실직자가 폭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집계에서 3월 1~19일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은 10만 3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만 3500여명(3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도 신규 신청자가 10만 7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 7000명(33.8%) 증가했다.

이것도 코로나19 확산의 초기 상상을 반영한 수치다. 실직 이후 시차를 두고 실업급여 신청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곧 실업자와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의 폭발적인 증가세가 예고된다. 지금까지 관광·유통·숙박 업종 등의 소규모 기업에 집중된 실직이 산업 전반으로 번지면서 최악의 고용 감소가 우려된다.

기업이 인력을 내보내는 대신 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줄을 잇고 있다. 올해 설 연휴가 끝난 1월 29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신청 사업자가 1만 9400곳을 넘는다. 90% 이상이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교육·도소매·제조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하루 800여 곳씩 늘어난다.

글로벌 경제 마비로 사람과 상품의 이동이 끊기고, 생산과 소비, 수출과 내수, 수요와 공급이 한꺼번에 추락하고 있다. 무력으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가 받는 충격은 더 크다.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한 비상조치들을 강구

하고 있다. 대규모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생존 위기에 몰린 항공사를 비롯해 자동차, 철강, 조선, 정유, 유통 등 주력산업의 대기업에까지 광범위하게 희망퇴직 프로그램에 들어갔다. 고용대란을 피할 길이 없다.

앞으로 경기의 바닥이 어디까지 갈지 짐작하기 어렵다.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질 게 분명하다. 가계의 위기가 심화하고, 빈곤으로 내몰리는 계층이 늘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

정부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계획을 내놔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에까지 금융기관 대출과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 도산을 막아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다. 우선 이들 자금을 신속하게 수혈해 한계상황의 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유지하는 일이 시급하다. 현장에서는 복잡한 절차로 당장 급한 자금지원을 제때 받기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한시적으로 실업급여 기준을 완화하고, 현행 최장 9개월인 지급기간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지금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곧 바닥날 가능성도 높다. 최악의 실업대란에 제도의 사각지대와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해 고용 안전망을 더 확충해야 한다.



건강100세 무릎 인공관절 수술 꼭 해야 할까

봄이 찾아왔지만 쌀쌀한 꽃샘추위가 이어지며 '시리고 아픈' 무릎 때문에 병원을 찾는 이들이 많다. 갑자기 떨어진 기온은 무릎관절 내 혈관을 수축시켜 주변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게 만드는데, 이때 뼈 사이에서 마찰을 감소시켜주는 '관절액'의 기능도 저하되며 평소보다 심한 '관절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평소 관절염을 잘 참아오던 어르신 중에서도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과 봄철에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말기 단계까지 관절염이 진행되면 연골이 완전 마모돼 무릎의 뼈가 맞닿아 있는데, 심지어 걷지 않는 순간에도 무릎 통증이 찾아오는 것은 물론 다리의 외형적 변화도 동반된다. 극심한 통증에 견디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삶의 질도 급격히 떨어진다.

실제로 심한 관절염 환자의 엑스레이를 보면 무릎 관절 사이의 연골이 마모되어 뼈와 뼈가 맞닿아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에게 약물이나 물리치료는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다. 관절의 마모가 심각한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할 수 있

는 최선의 치료는 '인공관절 수술'이다.

물론 연골의 마모도가 심한 상태라도 40, 50대의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하지 않는다. 인공관절에는 정해진 수명이 있기 때문이다. 젊은 연령대에서는 자신의 관절을 '보존'할 수 있는 줄기세포 등 연골재생 치료법을 찾아 시행해 보는 것을 권한다.

관절염의 원인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관절염의 경우 주로 노화에 따른 퇴행이 주된 원인인 반면 '류머티즘이나 신경병성 관절염'은 관절 주위 조직의 파손과 골 조직의 변화로 인해 관절 상태가 인공관절 수술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의와 상의한 후에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만약 인공관절 수술을 결정했다면 전문의의 숙련도를 따져보고 수술 후 재활운동 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재활운동은 수술 후 합병증 예방과 일상생활로의 조속한 복귀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입원 기간뿐 아니라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고용곤 연세사랑병원 병원장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